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이광수 · 이순철 · 권기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07
연구자료 10-43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이광수 · 이순철 · 권기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0-43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 쇄 예당문화인쇄 ☎ 02-2269-3202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년 세계지역 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0-04-07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부산외국어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부산외국어대학교	이광수 교수	이순철 교수 권기철 교수
협력연구기관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이광수 · 이순철 · 권기철

역사적으로 인도는 외부로부터 침입과 문화의 유입, 이로 인한 종교공동체 간의 갈등과 문화 융합, 남부와 북부의 연계성, 다양한 지형과 종족성 등에 의한 동서, 또는 남북의 문화 차이가 확연하다.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하여 인도의 각 지역은 전혀 다른 경제발전 과정 및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해부족으로 상당한 진출애로를 느끼고 있다.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은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사회적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경제발전 과정과 단계가 다르다. 이러한 사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동부 인도이다.

이에 본고는 동부 인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인도는 통일된 사회 및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출 시 지역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이러한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전략과 전술, 또는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진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벵갈과 오릿사 두 주로 구성된 동부지역을 살

펴보면, 우선 자간나트 신앙과 함께 두르가 뿌지는 동부 인도의 문화적 기층을 이룬다. 19세기 동부 인도는 콜카타를 중심으로 근대 문화가 확산되었다. 동인도회사는 오릿사지역을 벵갈 관구 아래 두면서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서벵갈과 오릿사는 의료, 교육, 보건 서비스, 주거 등 최소한의 인간개발지표가 인도에서 가장 낮다. 서벵갈 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부패 정도가 극심하고 자본가와 농촌의 사회 지배층의 폭력이 난무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의 폭력을 동반한 저항이 매우 심하다. 오릿사 주는 지정 부족(ST)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는데, 자연자원이 많아 개발을 둘러싸고 부족민의 저항이 매우 심하다. 낫살 무장 투쟁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계급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1947년 분단과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 밀려 온 대규모의 벵갈 난민도 이 지역이 낙후된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도로, 항만,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은 전 인도에서 가장 열악해 외부 자본 유입을 유인하기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동부 인도는 인도 전체 평균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소비를 하는 지역이다. 산업구조 면에서도 서벵갈과 오릿사는 공업보다는 농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주 모두 기초 금속산업을 제외하면 섬유, 가죽 등 전통적인 산업에 의존하는 등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의 경우도 오릿사는 광물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광물 및 금속 관련 제품이며, 서벵갈은 엔지니어링 제품, 석유제품, 가죽, 황마, 차 등을 수출하는 두 주 모두 전통적인 분야에서만 교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벵갈의 경우 장기간 공산당의 집권과 대규모 민간자본에 의한 반짜 산업화 경제정책으로 인한 조직화 부문의 몰락과 제조업의 부진, 전투적인 노동조합과 사업체 폐쇄에 의한 산업체의 침체와 실업확대,

무수히 작게 분할하여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에 의한 산업용지 확보 곤란, 토지수용에 대한 농민 보상 및 재할 정책 부재에 의한 농민의 토지수용 반발 등이 서벵갈 경제의 낙후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릿사의 경우, 막대한 천연자원, 산림, 풍부한 수자원에 의해 가장 먼저 빈곤에서 벗어날 주로 기대했지만, 80%에 가까운 인구의 농업 집중과 낮은 농업 생산성,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로 인한 산업화 정책의 실패 등으로 여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막대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기업 중심의 개발지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산업화의 실패로 고용확대 부진, 부족민 이주와 그 여파에 의한 최빈층으로의 전락, 이재민 부활정책 미비와 주민의 반발 등 산업 진출 곤란 등으로 산업개발 및 성장이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동부에 투자 진출한 두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경제구조 형성이 사회문화적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따따 자동차의 서벵갈 진출 실패사례를 보자. 2006년 따따 자동차는 10만 루피 자동차(나노)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서벵갈의 싱구르를 생산공장 입지로 선정하였다. 공산당 서벵갈 정부는 따따 자동차에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1천 에이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하였다. 농지 수용에 대해 해당 농민들이 반발하였고, 이 반대는 서벵갈의 야당인 트리나물 국민회의당(TMC: Trinamul Congress)의 맘따 바네르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진행되었다. 폭력으로 얼룩진 반대운동과 진압이 거듭된 끝에 2008년 10월 따따 자동차는 마침내 싱구르에서 공장을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나노는 구자라트 주의 사난드에서 생산되어 2009년 3월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포스코 사례를 보면, 포스코는 인도의 오릿사 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인도에서도 외국인투자로서는 최대 규모이고, 한국기업의 해외투

자로서도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철소 부지 내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3년 이상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주민거주 지역의 토지 수용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구와 그에 기반을 둔 사업 추진전략을 세우고 진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위의 결과로부터 우선 인도는, 특히 동부 인도는 지역별 사회적 영향으로 경제발달 과정이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동부 인도 진출 시 토지수용이 쉽지 않고, 그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은 지역마다 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출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 및 이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후 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부 인도는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풍부한 인력과 자원, 최근 적극적인 산업화정책의 추진 등으로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3
.....	
제2장 동부 인도의 인문사회구조	20
.....	
1. 동부 인도의 형성	20
가. 동부 인도의 정체성	20
나. 동인도회사 통치의 역사	25
2. 서벵갈과 오릿사의 인문사회구조	32
가. 서벵갈	32
나. 오릿사	38
제3장 인도 동부지역의 경제구조	45
.....	
1. 경제 현황 및 특징	45
가. 낮은 소득과 저성장	45
나. 높은 농촌 의존과 제조업 부진	50
다. 전통산업 중심의 무역	54
라. 풍부한 자원	56
마. 최근 친산업적 투자정책	62
2. 경제구조의 사회문화적 상관관계	64

가. 서벵갈	64
나. 오릿사	76
제4장 동부지역 투자사례 분석	82

1. 내국 자본의 사례: 따따 나노의 싱구르 철수	82
가. 싱구르 사태의 개요	82
나. 서벵갈 정부와 따따 자동차의 협약	87
다. 토지 수용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반발	90
라. 인도 정치의 역학 관계와 싱구르 사태	93
마. 나노 자동차의 사난드 이주	95
2. 외국자본의 사례: 부진한 포스코 제철소의 진출	98
가. 포스코 제철소 사업의 개요	98
나. 포스코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사업 내용	100
다. 포스코 사업이 지역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	106
라. 전망	111
3. 동부지역 투자 진출에 대한 시사점	112
가. 입지 선정	113
나. 분쟁 대응	114
제5장 구조적 상관성 및 시사점	116

참고문헌	121

Executive Summary	124

표 차례

표 3-1. 동부의 서벵갈과 오릿사의 경제 현황(2007~08년 기준)	45
표 3-2. 동부 인도의 앵겔 계수 추이	47
표 3-3. 동부 인도의 주별 월평균 1인당 소비지출 현황(2006~07년)	47
표 3-4. 동부 인도의 주별 월평균 1인당 소비지출 순위	48
표 3-5. 동부 인도의 월평균 1인당 소비지출의 특정 수준 이하 인구비중	48
표 3-6. 동부 인도와 주요 주의 공장 및 노동자 수와 임금수준 비교(2007~08년)	54
표 3-7. 서벵갈의 주요 수출상품 현황	56
표 3-8. 동부 인도의 천연자원 매장 현황	57
표 3-9. 동부 인도의 주요 주별 미네랄 생산 현황	58
표 3-10. 동부 인도의 7세 이상의 문자해득률	62

그림 차례

그림 1-1. 동부 인도의 서벵갈과 오릿사 위치	19
그림 2-1. 동부 인도의 주와 지형	43
그림 3-1. 오릿사 및 서벵갈과 주변 주의 주별 1인당 소득변화 비교(1999/2000~2007/2008년)	46
그림 3-2. 동부 도시지역의 월평균 1인당 소비지출 형태(2006~07년)	49
그림 3-3. 동부 농촌지역의 월평균 1인당 소비지출 형태(2006~07년)	50
그림 3-4. 동부 인도의 주별 산업구조	50
그림 3-5. 인도 주요 주의 농촌인구 비중	51
그림 3-6. 서벵갈과 오릿사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52
그림 3-7. 서벵갈 제조업 부문의 순부가가치 및 인도 전체 비중	52
그림 3-8. 오릿사 제조업 부문의 순부가가치 및 인도 전체 비중	53
그림 3-9. 서벵갈과 오릿사의 수출 현황	55
그림 3-10. 오릿사주의 주요 수출품목	55
그림 3-11. 오릿사의 자원보유 지역 현황	58
그림 3-12. 동부 인도와 주변 주의 인구 현황 비교	59
그림 3-13. 오릿사 및 서벵갈의 인구 수 및 노동자 비중(2001년)	60
그림 3-14. 오릿사 및 서벵갈 주의 사업장 근로자 수	60
그림 3-15. 오릿사와 서벵갈의 대학 현황	61
그림 3-16. 서벵갈의 조직화 및 비조직화 제조업의 성장 추세	70
그림 3-17. 서벵갈의 조직화 및 비조직화 제조업의 총생산 비중 추이	70

그림 3-18. 서벵갈의 조직화된 제조업체의 인도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 변화 추이	71
그림 3-19. 서벵갈의 노동 파업 및 참여 인력 수, 폐업 변화 추이	74
그림 4-1. 서벵갈 주 지도	87
그림 4-2. 싱구르의 위치	88
그림 4-3. 구자라트 주 지도	96
그림 4-4. 8번 고속국도(NH-8) 지도	97
그림 4-5. 오릿사 주 지도	101

제1장

서론

최근 인도경제가 근대사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가 인도경제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인도경제가 최근 5년간 7~8%의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인도경제는 GDP 기준으로 2009년 1,209억 달러로 한국(15위)보다 높은 12위를 차지하였으며, 실질구매력(PPP) 기준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세계 우수 경제전망기관들은 향후 인도가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가 203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2003)가 전망한 것처럼, 최근 인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강하게 회복하여 향후 2년 이내에 기존의 경제성장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경제는 2010년에 8%를 벗어나 9%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1년에도 8%대의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도에서는 최근 자동차, 핸드폰, 냉장고와 같은 내구 소비재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 등 내수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가령 2009년 12월 기준으로 인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5

억 명을 넘어섰다. 이에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인 Automation과 영국의 다국적 체인 Inchcape이 인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Ernst & Young은 인도 자동차시장이 2009년과 2020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중국이나 남미, 유럽, 일본보다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도가 세계적인 소비시장으로 형성될 잠재성을 먼저 읽은 다국적 자동차업체인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등은 인도의 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도에 진출했다.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령 인도정부는 부족한 전력을 충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발전소 건설에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도의 발전소 계획은 민간 핵발전소 건설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거대 프로젝트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또한 황금의 사각 고속도로 건설, 화물선용회랑 및 고속철도 건설계획, 국가적 차원의 항만건설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전망은 외국인투자를 급속히 유입시키고 있다. 수많은 외국기업들이 인도의 내수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할 것을 예상하고, 인도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만 다국적 기업들만의 현상이 아니다. 우리 기업들도 인도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인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삼성, LG, 포스코 등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향후 10~20년 이내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에 좀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형자동차 부문에서 2위, 백색가전 부문에서 각각 1, 2위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다른 다국적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인도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성공적인 대인도 진출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대한 진출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대인도 진출을 대기업 중심으로 선단식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출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광범위한 진출 기회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자동차, 전자 등 극히 일부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의 성공적인 대인도 진출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대인도 진출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찾지 못할 정도로 부진하다. 향후 인도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또한 한·인도 CEPA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면, 인도시장이 우리에게 기회는 무궁무진한 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직도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초기단계이며, 그 진출전략도 매우 기초적인 수준으로 인도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진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인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인도는 광활한 국토와 12억 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인구, 이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식민지 지배 이전에 단일 국가를 형성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인도는 각 지역별로 경제형성 과정이 다르다. 인도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 광대한 국토에 다민족, 다언어 연방국가 △ 식민지 자원 피착취국 △ 인종, 언어, 종교, 카스트 등의 차이로 사회의 강한 복잡화 △ 높은 인구 증가와 고용기회 부족, 과도한 농촌 인구, 비공식부문의 노동 빈민 상존 △ 광대한 국토의 자연 조건에 의한 분리 및 식민지 시기의 산업 및 기간투자의 지역적 차별화 정책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와 더불어 현대 인도정부의 5개년 경제개발정책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및 확충과 중공업화 정책, 농업개발정책 등은 처음부터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 경제의 발전 및 성장 격차는 물론 지역간 상업과 물론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차별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도의 대륙은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문화 유입으로 인해 종교 공동체 간의 갈등과 문화 융합, 남부와 북부의 연계성, 다양한 지형과 종족성 때문에 발생한 동서 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기반에 의해 지역적 특성이 형성되었다. 각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발전 유형이 매우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이해하여 진출할 경우 상당한 진입장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은 물론 경영 및 생산 활동 중에도 기대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 인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의 미비이다. 최근까지 국내에서의 인도 연구는 인도경제 및 산업 구조, 경제전망, 산업현황 등 거시적 진출 환경에 집중되어 수행되어 왔다. 주한인도대사관(2010),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0), 이순철 외(2006) 등에서 권역별 주별 투자환경 연구가 일부 시행되었지만, 이 또한 인도 경제권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보고서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진출 전략 연구가 아니다. 즉 인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시장 및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시장의 특수성과 구조 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기업들도 인도 진출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의 차이가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진출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고 이색적인 진출 애로요인을 주고 있다는 배경 하에서, 인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와 더불어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가 인도 진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이 현재의 특정지역 및 특정분야에 한정적 진출보다는 다양한 지역과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또는 최소한 권역별로 진출분야 및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따라 진출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갖

추고 진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도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적 다양성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이질적 특성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대인도 진출 시 단편적인 진출 전략보다는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진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는 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부지역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동부 인도라 함은 의견의 여지가 있지만, 서벵갈과 오릿사를 말한다. 두 주는 같은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적 공통점이 있지만, 주의 형성과 문화가 전혀 달라, 본고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다. 또한 서벵갈과 오릿사는 같은 동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집권정당이 전혀 다르며 추구하는 정책과 성격도 다르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정책의 계획 및 수행 과정도 상이하다. 무엇보다도 서벵갈과 오릿사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대 이상으로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때 자동차의 나노 생산 공장이 입지선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최종적으로 서벵갈을 떠나 구자라뜨로 이전하였는데, 현재 따따는 구자라뜨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인 포스코가 오릿사에 진출하였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어, 포스코 제철소 건설은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가시적으로는 동부지역으로의 투자 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기업이 진출단계에서부터 부딪치는 내용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동부지역의 서벵갈과 오릿사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경제적 구조를 고찰하고,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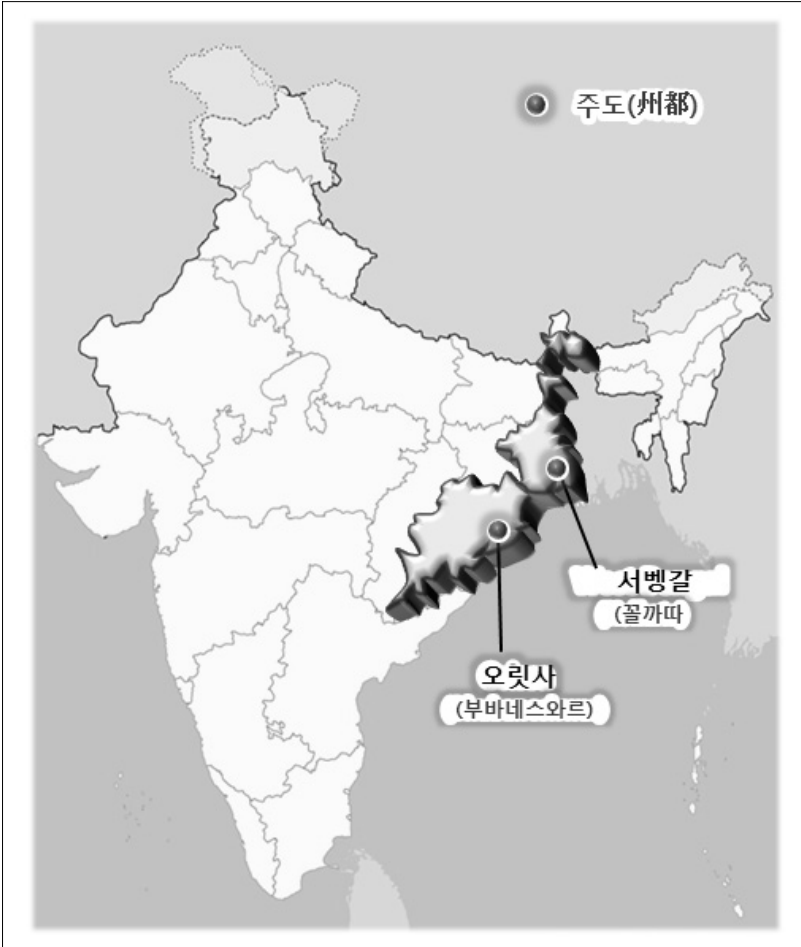
둘째, 비록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그 사회 및 투자 환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셋째, 따따 자동차와 포스코 사례를 통하여 두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투자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점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본고는 우선 동부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조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도경제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동일 권역 안에서 각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특징에 영향을 준 요소들을 분석한다. 그다음으로 두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된 경제적 구조 및 특성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공통된 경제적 구조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특성을 형성하게 된 원인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각 주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같이 분석한다. 또한 서벵갈과 오리사의 경제정책이 각 주의 사회적 구조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향후 우리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동부 인도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동부 인도에 진출하기에 유리하거나 유망한 분야도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따따 자동차와 포스코의 진출 사례를 고찰하여, 인도, 특히 동부 인도에 진출할 때 고려하거나, 진출 전략에 필요한 고려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고는 인도 전체를 하나의 사회 및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 진출 시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그다음으로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전략과 전술, 또는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진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점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동부 인도의 서벵갈과 오릿사 위치



자료: 맥스틴인도경영 자문.

제2장

동부 인도의 인문사회구조

1. 동부 인도의 형성

가. 동부 인도의 정체성

1) 동부 인도의 범역

인도정부는 북부 인도의 히마찰 뽀라테시(Himachal Pradesh), 잠무 카시미르(Jammu & Kashmir), 뽀잡(Punjab) 주와 찐디가르(Chandigarh) 연방역(Union Territory)을 포함하고, 북중부 인도의 비하르(Bihar), 찏띠스가르(Chattisgarh), 하리아나(Haryana), 자르칸드(Jarkhand), 마디야 뽀라테시(Madhya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웃따라칸드(Uttarakhand), 웃따르 뽀라테시(Uttar Pradesh) 주와 델리(Delhi) 국가수도역(National Capital Territory)을 포함하는데, 이 가운데 비하르와 자르칸드는 동부 인도에 넣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라자스탄을 서부에 포함하기도 하고, 마디야 뽀라테시와 찏띠스가르를 남중부 인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부 인도는 서벵갈과 오릿사에 비하르, 자르칸드를 포함하기도 하고, 앓삼(Assam) 등 동북부 인도를 포함

하기도 한다.¹⁾ 하지만 종족, 언어, 사회 구조, 종교, 주요 산업 (특히 농업의 위치), 의식주 문화, 정치 체제, 지리 환경 등을 주제로 하여 공통점을 파악해 보면 비하르와 자르칸드를 북부 인도에 포함하고 앏삼을 포함한 일곱 개 주는 동북부 인도에 포함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인도의 각 지역을 구분할 때 마다 그렇듯 동부 인도 또한 단순한 지리적 구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의 기층을 절대적으로 공유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동부 인도 범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분석의 필요에 따른 일부 자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동부 인도는 대체적으로 갠지스 하류 유역의 델타 평원을 공유하고, 동쪽으로는 벵갈만을 접하고 있고, 서북쪽으로는 인도 최고의 오지 가운데 하나인 초파 나그뿌르(Chota Nagpur) 고원을 경계로 인접 지역과 나뉘어 있다. 동부 인도의 지형은 갠지스라는 대하천이 만들어낸 평야부와 초파 나그뿌르를 중심으로 하는 산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갠지스 하구 델타와 동가츠 산맥을 따라 형성된 해안 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쌀 경작 농민과 산지의 화전 이동 경작을 하는 부족민, 그리고 갠지스 강과 벵갈해를 배경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등으로 나뉘거나 농민이 그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갠지스 하류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삼각주 지역으로 갠지스 강 외에도 많은 지류들이 모여 많은 자연 물웅덩이들을 만들어 관개를 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하류에는 많은 충적토가 쌓여 벼를 비롯하여 사탕수수, 렌틸 콩, 깨, 감자, 밀, 보리 그리고 여러 가지의 채소를 재배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주요 작물인 벼의 경우에는 일 년 3모작도 가능하다. 북부 인도가 전반적으로 밀을 주곡으로 하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반면 동부 인도는 쌀의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 벵갈과 오릿사 주민들이 비록 약하지만 동일한 지역의 인식을 갖게 되는 데는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작

1) http://en.wikipedia.org/wiki/North_India.

용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 연구가 설정한 동부의 지리적 범역은 서벵갈과 오릿사 두 주가 만들어내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2) 복합 힌두 문화의 형성

동부 인도의 역사는 13세기에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벵갈에서는 이 시기부터 무슬림 세력이 착실히 지배를 확대했고, 앗삼에서는 산족의 아훤이 미안마 고원으로부터 진출해서 왕조를 수립했다. 벵갈의 무슬림 지배와 앗삼의 아훤 지배는 영국 지배를 대신할 때까지 이어지고, 양 지방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반면, 오릿사는 12세기 초 이래 강가조(朝)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13세기가 되면서 벵갈을 정복해 더욱 남진하려는 무슬림 세력과 치열한 세력 다툼을 해야만 했다. 이렇듯 앗삼, 벵갈, 오릿사가 각각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치 권력 아래에 놓이게 된 13세기는 동부에서 지방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시기였다. 이후 각 문화 사이의 거리는 서서히 커져갔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 지방에 공통성을 가져온 힘이 작용한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16세기 비슈누교의 박띠 운동, 그중에서도 짜이따니아파 운동이 동부 인도 일대에 퍼지게 되면서 끄리슈나에 대한 박띠는 동부 인도 문화의 기층을 이루었다. 짜이따니아파는 힌두 사회 속에서 경제적 실력을 가지면서도 의례적으로는 낮게 위치된 상인 카스트들이 주요 신도들이다. 초기 그들의 광범위한 상행위는 벵갈과 북부 인도의 주요 상업 루트와 연관시키는 역할도 하였는데 17세기경에는 오릿사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고 그곳에서 하위 카스트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무슬림 지배하의 벵갈과 힌두 문화권의 오릿사가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또 그들은 지방 왕권과 연결되면서, 세력 확대를 이루고 부족지역에 적극적으로 짜이따니아 신앙을 확장시킴으로써 부족의 힌두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신학적으로 볼 때 해탈이 끄리슈나와 라다의 신성한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신앙은 벵갈과 오릿사 지역의 토착 만뜨라 신앙과 결합하면서 하층 카스트, 도덕 폐

기론자, 황홀경에 취한 바울(Baul)과 안에서 크게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짜이따니아파의 신앙은 기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동부 인도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들의 종교 활동은 19세기 들어 민족 운동을 지지하는 정신상의 지주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동부 인도의 기층적 성격을 상징하는 신앙으로 오릿사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힌두 성지 뿌리(Puri)의 자간나트(Jagannath) 신앙이 있다. 자간나트 신앙은 앓삼과 벵갈 그리고 오릿사의 토착민 다산 승배 신앙이 힌두 대전통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층 문화와의 관계를 현재까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동부 인도의 대표적 힌두 신앙이다. 따라서 자간나트 신앙은 대전통을 기준으로 볼 때는 비슈누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삭띠교, 쉬바교, 밀교 불교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고, 여전히 부족 신앙의 요소도 있어 문화의 복합적 양상이 매우 심하다. 또 그 신앙이 왕권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이러한 자간나트 신앙이야말로 동부 인도의 복합적인 문화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Anncharlott Eschmann *et al.* 1986, p. 359).

자간나트 신앙과 마찬가지로 동부 인도의 문화적 기층을 이루는 것으로 두르가 뿌자(Durga Puja)를 들 수 있다. 두르가 뿌자는 서벵갈에서만 아니라 같은 동부 인도 범역 내에 있는 오릿사에서도 널리 지내는 축제로 동부 인도의 기층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 밖에 거주하는 세계 곳곳의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벵갈과 오릿사 주민들을 한 데 묶는 역할도 톡톡히 한다. 2006년에는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에서 두르가 뿌자가 열리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두르가 뿌자는 동부 인도의 주요 도시에서 방송의 주요 소재로 다루어지고, 축제 기간에는 모든 채널이 두르가 뿌자 관련 프로그램만 방영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면서 동부 인도의 기층 문화로서 성격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3) 근대화를 통한 동부 인도의 형성

19세기 이후 20세기를 지나면서 동부 인도는 콜카타를 중심으로 근대 문화가 확산되었다. 1757년 빨랏시 전투 이후 동인도회사는 벵갈의 지배권을 확립한 후 1765년에는 벵갈, 비하르, 오릿사의 미드나뽀르(Midnapore district) 지역의 징세권을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벵갈과 오릿사는 동인도회사 지배 아래 하나의 행정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1803년까지 동인도회사는 나머지 오릿사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마이소르(Mysore)와 마라타 동맹을 패퇴시키고 오릿사 지역을 모두 벵갈 관구(Bengal Presidency) 아래 두었다. 이로써 벵갈과 오릿사는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근대의 동부 인도는 콜카타를 중심으로 하는 벵갈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다. 동인도회사의 근대화와 식민화 정책에 따라 근대화된 콜카타의 상인은 벵갈과 오릿사 지역의 토지를 구입해서 지주가 되었고, 그들 지역의 행정은 벵갈인의 관리에 의해 이루어졌다. 벵갈인들은 고대 갠지스 중상류 유역에서 브라만들이 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서구화된 근대 벵갈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야(오릿사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니, 벵갈리와 동일 어족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유럽어보다 더 많이 닳은 언어였기 때문에 쉽게 소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지역이 근대성을 통한 문화적 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만은 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근대 이후 통합적 구조를 마련하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두 지역은 오랫동안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여 왔다. 오릿사 사람들은 우리야를 벵갈리의 방언이 아니고 독자의 언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현상은 영국 제국 정부의 분할 통치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벵갈주는 1874년에 앓삼이 별개의 행정 단위로 조직된 것을 시작으로 1905년에는 서(西)벵갈과 동(東)벵갈로 분할을 시도하였다가 민족주의 운동의 극심

한 반대에 부딪혀 전략적 후퇴를 하고, 1912년에는 비하르·오릿사 주가 분리되었으며, 1935년에는 이 또한 비하르와 오릿사로 분할되면서 언어 주 재편성의 실시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비록 근대성을 일정 부분 공유한다 할지라도 독자적인 지역 문화가 중세가 전개되기 시작한 8세기경부터 근대가 시작된 18세기까지 서서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 동인도회사 통치의 역사

1) 동인도회사 식민 통치의 구조

동인도회사를 통한 영국 통치에 의해 인도에는 식민국가라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었다. 인도는 ‘식민지’라는 전대미문의 경험을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데 그 시작이 벵갈과 오릿사의 동부 인도에서 시작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벵갈부터 비하르와 오릿사 지역에 걸쳐 기존의 공무역 면세 특권에 사무역을 포함한 관세 면세 특권을 획득한 것이다. 반대로 인도 상인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가되었다. 관세 면세 특권 외에도 동인도회사는 전쟁 발발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받았고, 콜카타에서 자유로운 요새 구축을 허가받았으며 주화 주조권도 획득하였다. 결국 인도 상인들과 토후는 몰락하고 동인도회사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765년에 무갈 제국 정부에 벵갈, 비하르, 오릿사 지역의 조세 징수권까지 확보하였다. 이 지역의 조세 징수권을 획득하면서 동인도회사는 광대한 부(富)를 장악하게 되었다. 동부 인도에서 착취한 경제력은 영국이 추후 인도 침략에 쓰는 군대와 행정 조직에 적극 활용되었다.

따라서 동부 인도는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를 가장 우선적이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독특한 구조를 성립시켰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새로운 유럽식 토지 소유 관계를 도입하면서 전통적인 농촌 구조를 크게 바꾸었다는 사실

이다. 이는 동인도회사가 1793년에 실시한 영대(永代)지민다리제(Permanent Settlement System)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벵갈과 오릿사 그리고 웃따르 빠라데쉬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부 인도에서는 중세 이래 무갈 시대를 거치는 동안 브라만, 라즈뿌뜨, 타꾸르, 까야스타 등과 같은 상층 카스트들이 지민다르로서 토지를 소유한 반면에 그 경작은 슈드라가 주로 맡아 하였다. 경작지 면적에 비해 소작 농민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그들은 경작을 하고자 하는 한에서는 거의 영구적으로 토지 경작권을 소유하였다. 그렇지만 동인도회사에 의해 새로운 지대제가 도입됨으로 인해 토지가 경매되고, 전대(轉貸)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많은 지민다르들은 보다 큰 규모의 신(新)지민다르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신지민다르의 성립은 영국의 안정적 통치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영국인 통치자들에게는 19세기경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농민 폭동의 진압이 무엇보다도 큰 과제였으니 이를 위해 지역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전통적 지배 계급들 가운데 그들에게 협조적인 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목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지대법의 도입을 통해 신지민다르를 형성하였고, 따라서 신지민다르에게는 농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이해를 공동의 축으로 하여 세력을 결집하는 것을 철저히 억압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영국인 통치자들은 그들의 비호 아래 특정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표 세력으로 부상한 신지민다르들을 통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다. 신지민다르의 성장과 사회의 안정은 곧 농민의 피해를 가져왔고, 농민의 위치는 극도로 악화되어 노예와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원래 벵갈의 지민다르는 영국의 지주와는 달리 소작인의 지주이면서 관리로서 정부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화를 잘 파악한 동인도회사는 벵갈의 지민다르를 동인도회사의 소작인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결국, 새로운 토지 소유 관계의 도입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에서 유리하고 그로 인한 농업의 상업화, 농민들의 무토지 노동자로의 전환 그리고 전통적 지배층을 식민 지배를 지지하는 사회 계층

으로 육성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적 농촌사회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수공업이 파괴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면화, 황마(jute) 등의 식물 재배가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농민이 토지로부터 완전히 유리되면서 그들의 삶은 대지주와 대상인들의 고리 대금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상시에 대한 대비란 있을 수가 없었고 오로지 빈곤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기근과 홍수로 인한 대참사와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동부 인도에서 거두어들이는 영국 산업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고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자본가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이 성장한 산업 자본가들에 의해 동인도회사의 독점 무역이 폐지되었다. 이제 인도는 더 이상 무역 상대국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는 단지 영국의 산업 발달에 필요한 원자재 보급과 그들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를 위한 존재였다. 이로 인하여 인도는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하였다. 이로써 인도의 경제 구조는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으니 원자재 외에 인디고, 차, 이편 등의 플랜테이션 작물을 주로 생산 보급하였다. 이 가운데 이편은 영국 자국에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었고 중국에 수출되어 중국의 침략에 결정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로서 전통적 농촌 사회 구조가 크게 변형되었고, 그 위에서 농민과 수공업자의 몰락 그리고 상업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지주의 형성과 함께 전통 봉건 농업 경제체제가 무너지고 원재료를 수출하는 식민 국가로 전락하였다. 전통 경제의 붕괴는 가내 수공업의 몰락에서 출발하였다. 인도의 가내 수공업은 수세기 동안 세계적 명성을 떨쳐 유지해 왔으나 영국 통치로 인해 급격히 몰락하였다. 이는 영국의 불평등 무역 정책, 시장·노동의 통제 등이 원인이 되었고, 곧 영국의 기계 공업 생산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값싼 영국 제품들이 물밀듯 들어오게 되었고 인도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 세력인 토후 군주가 모두 몰락함으로써 인도의 산업은 몰락하였다(이광수 2010, pp. 245~246).

2) 낙후의 지속

동인도회사의 영대 자민다리제 도입 때문에 토지가 상업 세력 부재 지주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벵갈과 오릿사의 토지 체계는 독립 이후까지 지주의 착취와 경작자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벵갈 주와 오릿사 주 모두 토지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인도 내에서 가장 격심한 가운데 특히 서벵갈 주는 공산당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고, 오릿사 주는 농민 혁명을 주장하는 마오주의 반군의 세력이 인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동인도회사의 지배 체제와 그를 통한 착취와 관련이 깊다.

서벵갈과 오릿사는 이웃한 비하르, 찏띠스가르, 자르칸드 등과 더불어 인간 개발 지표 대부분이 인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특히 의료, 교육, 보건 서비스, 주거 등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관련이 있는 지표가 턱없이 낮다. 더군다나 서벵갈 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부패 정도가 극심하고 자본가와 농촌 사회 지배층의 폭력이 난무하며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의 폭력을 동반한 저항이 매우 심하다. 사회 발전 부문 또한 마찬가지로 도로, 항만,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이 전 인도에서 가장 열악해 외부 자본 유입을 유인하기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케랄라 등 서부 연안 주와 따밀나두, 까르나타카 등 남부 인도 주 등이 최근 들어 획기적인 산업 발전을 달성하고 있는데 비해 이곳이 산업 발전 부문에서 여전히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런 점과 관련이 깊다.

서벵갈 주는 공산당이 33년간 집권하면서 강력한 토지 개혁을 실시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두었음에도 농민, 노동자, 도시 빈민의 삶의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주 경제에 대한 거시 지표 또한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산당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기인한 것으로 2006년 이래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산당 정부의 무능, 부패, 폭압 등에 대한 반발이지 친자본주의화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릿사 또한 형태는 다르지만 과정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 정부는 낙후된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 광산 개발과 그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으나 현 정부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족 거주 산악 지역의 반발은 서벵갈에서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오릿사 또한 개발을 통한 경제개발 정책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두 주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빈곤층에 대한 뿌리 깊은 소외와 그로부터 출발한 내부 식민주의 정책에 대한 반발의 결과이다. 서벵갈에서 1970년대 성공리에 실시한 토지 개혁과 같은 빈곤층을 위한 사회 경제 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발정책도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렇게 되면 빈곤층이나 부유층이나 모두 낙후와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 것이고 그 와중에 정치인들만 온갖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 인도의 뿌리 깊은 빈곤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낙살운동(Naxalite Movement)이 있다. 이는 1967년에 서벵갈 주의 낙살바리(Naxalbari)에서 무토지 농민과 빈농이 토지 점거 무장 봉기를 일으킨 이후 전국의 빈곤한 농촌과 산악 부족 지역에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마오쩌둥식 혁명을 추구하는 무장 공산주의 세력이다. 낙살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토지개혁 후에도 토지 소유가 여전히 불평등하고 새로 나타난 지주들 역시 자신들을 착취하면서 더 가난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낙살 무장 투쟁의 영향력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곳에서 계급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서벵갈에서 시작하여 오릿사, 안드라 뿌라데시, 비하르, 찻띠스가르, 자르칸드 등 벵갈만 연안의 동부 인도와 동남부 인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마오쩌둥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 혁명 운동이 이 지역에서 특히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은 농촌의 빈곤층뿐만 아니라 소외당한 부족들에게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연방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정치 세력이 그들을 정치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력 척결에 앞

장 선 가운데 이 지역이 인도 내에서는 가장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인 데다 이 지역은 산악으로 연결되어 피신하면서 게릴라 무장 혁명 운동을 벌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Agrawal 2010, p. 150). 그래서 이 동부 지역을 ‘붉은 회랑’이라고 부른다. 현재 인도 정부는 낙살 반군을 국가 안보에 대한 제1의 위협 요소로 간주한다.

3) 힌두-무슬림 갈등과 방글라데시의 독립

대규모의 부채 지주인 신자민다르는 대부분 영국인 상업 세력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그 토지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대부분 힌두였다. 문서 관리 등 사무직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을 통한 토지 소유자의 권익 유지를 담당할 법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러한 일에는 영국의 근대화에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힌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무슬림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식민지 엘리트 대 무슬림 대중이라는 사회 계층의 측면에서 힌두 대 무슬림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어 갔다.

식민 지배 아래에서 무슬림은 식민 정부가 주도한 근대화 정책에 반발하였고, 그러다 보니 엘리트층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힌두는 상대적으로 영국 지배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근대화 정책에 적극 가담하여 두터운 지배 엘리트층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5년 영국 식민 정부는 벵갈의 무슬림과 힌두의 갈등을 부추기고자 벵갈 분할을 시도했는데 이는 당시에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상당히 표면화되었다는 반증이다. 힌두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 표면화되면서 무슬림만의 집단 이익을 위해 1906년 전인도무슬림연맹(All-India Muslim League)이 결성된 곳이 현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Dhaka)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양 집단 간의 갈등이 점차 첨예하게 되면서 콜카타는 1943년에 내전 수준의 분단 폭력을 겪은 뒤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단된다.

두 집단 간의 갈등은 식민 시대 벵갈을 중심으로 한 황마 경작 및 상품화

경제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벵갈은 기후가 고온 다습하고 이 시대의 대표적 현금 작물인 황마 재배에 적당하였고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아 값싼 노동력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황마 원료의 독점적 공급 지역으로 부상했고 19세기 후반 이래 황마는 벵갈의 농촌경제와 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작물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1855년에는 후글리강 연안에 인도 최초의 황마 공장이 설립되었고 1928년 콜카타 지역의 황마 공장에서는 34만 4천 명의 노동자가 일했다. 황마는 쌀에 비해 수익이 높아 벼를 주로 재배하는 농가와 비교해서 농촌 소득이 증대하고 가계비의 화폐화가 진전되면서 황마 재배 중심의 농민경제가 형성되었다. 농촌에서 황마를 경작하거나 작물을 모으는 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무슬림이 많았는데 황마 유통에 영향력을 가진 중매업자나 창고업자 등은 힌두였다. 황마산업을 둘러싸고 무슬림 농민 사이에 반힌두 감정이 점차 커져갔다. 이는 또 다른 방향에서 무슬림의 힌두에 대한 반발 정서였이다.

1943년 콜카타에서 발생한 내전 수준의 종교공동체 간 폭력 사태는 곧 이어 인도-파키스탄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동파키스탄으로 갈린 동 벵갈 지역이나 서벵갈 지역 모두 서파키스탄 뺨잡의 경우에서와 같이 분단으로 인한 참혹한 비극은 겪지 않았다. 특히 공산당이 집권한 서벵갈의 경우, 공산당 정부가 종교공동체를 이용한 정치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30년 넘게 집권하였기 때문에 비하르나 웃파르쁘라데시 등 북부의 다른 지역에 비해 종교공동체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이는 최근에 몸바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등 서부에서 자주 일어나는 무슬림의 테러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릿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대적으로 힌두-무슬림의 갈등이 적은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단된 이후 동파키스탄이 인도의 지원을 받아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게 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방글라데시는 서벵갈에 대해 ‘벵갈인’으로서 전통

적으로 가져 온 우호적 정서를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전쟁을 실질적으로 직접 겪은 서벵갈 주는 이후부터 극심한 경제 침체라는 분단과 전쟁의 후유증을 겪었다. 방글라데시는 독립 후 세계 최빈국의 위치를 오랫동안 차지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고 그 때문에 많은 주민이 서벵갈과 오릿사의 동부 인도로 이주하면서 인도의 동부 지역이 더욱 빈곤한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

2. 서벵갈과 오릿사의 인문사회구조

가. 서벵갈

1) 인문 지리적 구성

주도인 콜카타가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도에서 가장 주요한 제조업 기반 도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벵갈은 농업 중심 주다. 면적은 인도 전체의 2.7%밖에 되지는 않는데도 인구는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다. 주도 콜카타는 일찍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시킴, 아삼, 비하르, 자르칸드, 오릿사 등 인접해 있는 주나 나라들이 낙후된 지역들이라 여러 이주민들이 몰려 도시 기능이 대단히 열악한 전형적인 제3세계 대도시의 상태에 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주요 종교 가운데 힌두가 72.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무슬림이 약 25%로 소수를 차지한다.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단 때 대부분의 무슬림이 지금의 방글라데시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무슬림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특히 벵갈 르네상스에 대한) 벵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감이 강해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편이다. 기독교도, 시크교도, 불교도 등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주로 히말라야 산록에 사는 사람들로 약 2%의 부족민이 있다. 언어를 중심으로 볼 때는 벵갈리를 사용하는 인구가 절대 다수이지만, 근대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콜카타가 동부 인도에서 경제의 중심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하르나 오릿사 등으로부터 이주해 온 인구가 상당 수 있어서 힌디어와 영어가 널리 사용되고 오리아 사용 인구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불특정 대중과 접촉할 때 상황에 따라 벵갈리, 힌디, 영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갠지스 강을 기반으로 사는 주민들이 많고 그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접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방글라데시와 접촉이 많고, 따라서 파악되지 않는 방글라데시 출신 미등록 이주민이 인구 중에 상당수 있다. 국가자원 봉사단(RSS)이나 세계힌두회의(VHP) 등 힌두 우익 정치 세력은 방글라데시 출신 미등록 이주민을 척결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펼쳐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당사자인 서벵갈 지역에서는 호응을 거의 얻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짜르(char)라고 하는 갠지스 하구에서 침전 토사로 만들어졌다 문순기에 사라지는 임시 섬에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 2만 명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해 온 난민이다. 그들은 교육이나 의료와 관련해 어느 곳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특히 여성의 출산 시 사망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 갠지스 강 하구 삼각주를 기반으로 하여 살고 있으나 최근 중상류에서 발생해 이곳까지 전달된 갠지스 강의 오염이 심해 지역 주민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²⁾

2) http://en.wikipedia.org/wiki/West_Bengal.

2) 문화적 토대

콜카타는 1912년까지 영국령 인도의 수도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콜카타에서는 인도의 전통적 문화와 유럽 문화가 섞여 독자적인 근대 문화가 형성되었다. ‘근대 인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람 모한 로이가 종교 사회 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이 도시이고 반킴 찰드라 차메르지(Bankim Chandra Chatterji),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등이 근대 문학과 미술, 음악을 이룩한 것도 이곳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민족 운동이 처음 일어나던 곳도 이곳이다.

소위 벵갈 르네상스라 불리는 이 움직임에 대한 벵갈인의 자부심은 대단히 높다. 힌두 민족주의에 대해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도 힌디 국어화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인 반대를 한 것도 벵갈인이었다. 여기에는 벵갈리가 힌디보다 산스크리트로부터 차용한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등 더욱 전통적인 반면 힌디는 무슬림의 언어인 우르두로부터 많은 어휘를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같은 언어학적인 점과 벵갈 문학이 훨씬 많은 뛰어난 작품을 갖고 있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타고르(최근 들어서는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인 아마르티야 센까지 포함)에 대한 자부심이 상층 작용한 측면이 크다. 인도에는 각 지역 사람들을 일반화하여 통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벵갈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바부(babu)라고 부른다. 원래 아버지라는 뜻에서 존경하는 이를 뜻하는 이 어휘는 보통은 근대화된 교양인을 가리키는 말로 더 널리 쓰인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동인도회사에 협조한 토착민의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존경과 비판의 의미가 같이 들어 있다. 하지만 벵갈인 이 말에 대해 비판적 시각보다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는 쪽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동인도회사에 협조하였다는 의미보다는 근대 문화를 일으켰다는 자부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콜카타에서 시작한 인도의 근대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 대륙 각지 특히 주변의 여러 주로 파급되었다. 콜카타의 상인은 벵갈에 인접하는 지역

의 토지를 구입해서 지주가 되고, 그들 지역의 지방 행정은 벵갈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하르나 오릿사, 앓삼 남부 구릉지로 진출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근대 벵갈 문화를 가져갔다. 그래서 근대의 동부 인도는 콜카타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유럽 문화를 적극 도입한 근대 벵갈 문화의 강한 영향 아래 있게 된다.

이러한 근대 문화는 동인도회사가 수출 지향의 1차 산품 생산 중심 산업 구조를 형성하면서 토착 인도인에 의한 상업 잉여가 축적되고 이것이 19세기 후반 들어 공업에 투자되면서 민족 자본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과 관련이 있다. 콜카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부재 지주인 신자민다리와 의사, 법률가, 동인도회사 관리(행정고등문관 Indian Civil Service), 군인 등 새로운 근대 전문직 등과 더불어 식민지 젠틀맨 층이 발전하였고 그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식민 통치의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영국인의 언어와 생활 양식, 플로, 크리켓 등의 스포츠, 클럽과 같은 영국식 사교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 대영제국의 신민으로서 의식을 세우고 나아가 일반 인도 대중과의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하였다. 콜카타를 비롯해 서벵갈과 오릿사의 큰 도시에 클럽 문화와 같은 영국 상류층의 문화가 여전히 현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은 이 시기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3) 정치적 동향

1947년 독립 이후 서벵갈의 정치는 공산당, 낙살주의자, 노동조합 등 좌파 세력에 의해 크게 영향 받았다. 1971년 주 의회 구성 선거에서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 즉 CPI(M)(이하 CPI(M)로 표기)는 241명의 후보자를 등록해 그 가운데 113명을 당선시키고 32.86%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1977년 선거에서는 국민회의당(I)을 물리치고 집권당이 되어 쥬띠 바수(Jyoti Basu)가 주수상이 되었고 그 집권당의 위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CPI(M)가 이끄는 좌파전선(Left Front) 연립 정부가 여

당으로서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정부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계 최장수 공산당 정부다. 방글라데시는 1970년대 이후 발생한 경기 침체와 노조 및 좌파 세력의 강경 투쟁 그리고 1971년 방글라데시 해방 전쟁 때문에 발생한 엄청난 수의 난민 유입 등으로 주 경제가 크게 하락하면서 생긴 결과다. 현재 주정부 수상은 2006년 주 의회 선거 이후 CPI(M) 소속이지만 상대적으로 개혁주의자인 붓다데브 밧다짜리아(Buddhadeb Bhattacharya)가 맡고 있다.

1977년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획기적인 일은 토지 개혁의 시행이었다.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1976~77년에 지정 카스트(SC)에게 소유권이 있던 토지가 141만 8,000ha였던 것이 토지 개혁 직후 그 두 배에 달하는 275만 9,000ha가 되었고, 소농의 소유량도 149만ha에서 160만 7,000ha로 증가한 반면 중농의 소유량은 50% 정도가 감소되었고, 대농의 경우 21만 9,000ha로 급감하였다. 토지 개혁은 폭력을 따지 않고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으나 농촌 발전 개혁의 성과물 배분에서 지배적 카스트에 의해 주도되는 뻘짜이뜨의 일방적 횡포의 만연과 낙후 지역민들에 대한 주정부의 극심한 홀대와 지정 부족들의 반발이 주요 불만 요소로 부상하면서 특히 부족민지역의 반발이 심해졌고 결국 이는 낙살주의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지난 33년간 지속된 공산당 장기 집권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몰린 상태이다. 정권 초기에는 성공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가난한 농촌 지역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인도 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조직 산업부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잘 활용해 산업화 정책에 집중하지 않아도 노동자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0년이 넘게 지속된 장기 집권 과정에서 공산당 정부는 부패, 족벌주의, 폭압, 기회주의의 대명사로 각인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외국 자본인 인도네시아 살림 그룹의 난디그람(Nandigram) 특별경제구역(SEZ) 설립 및 화학 허브 단지 투자와 국내 자본인 따따 자동차의 싱구루 나노차 생산 단지 설립 투자를 유치해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쇠퇴

하는 주 경제를 희생하려 하였다. 그러나 토지 수용을 둘러싸고 보수 야당·좌파 지식인·낙살 반군 등 모든 야권이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난디그람에서 경찰이 발포를 하여 14명의 주민을 죽이는 등 강경 폭력 진압을 함으로써 여론이 심하게 악화되고 그런 여파 속에서 결국 투자 기회를 모두 잃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산당이 오랫동안 집권한 주정부 때문에 노동 분쟁의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기업이 조기 투자하면 초기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지만, 결과는 그와는 판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따따 자동차 정도의 대기업이 그러한 오판을 하게 된 데에는 인도 정치가 - 연방 정부 차원에서든 주정부 차원에서든 - 반대 세력(심지어는 낙살 반군과 같은 경우조차도)을 일방적으로 탄압하고 뿌리 뽑는 일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그래서 사업의 진척이 상당히 늦어진다는 오랜 전통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2008년 따따 자동차가 싱구르에서 철수한 후(현재는 구자라뜨 주에서 단지 유치에 성공하여 사업이 진행 중임.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제시함.)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제1야권 세력인 마마따 바네르지(Mamata Banerjee) 트리나몰 회의당(Trinamool Congress)이 주도인 콜카타에서 141석 가운데 95석을 차지하는 등 서벵갈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향후 2011년 주 의회 총선에서 트리나몰 회의당이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으나 군소 정당들과의 연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트리나몰 회의당이 공산당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반대했으나 그 뿌리를 보수주의에 두고 있고, 산업화 정책 자체보다는 공산당 정부의 집행 과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권 창출에 더 치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서벵갈에서의 정치는 과거 공산당과 같은 강력한 일당 체제가 아닌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이합집산의 정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 오릿사

1) 인문 지리적 구성

오릿사는 인도에서 면적별로는 아홉 번째, 인구별로는 열한 번째로 큰 주다. 공식 언어는 오리야(Oriya)이지만 초파 나그뿌르 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와 서북부 산악 지대에는 산탈리(Santhali), 문다(Munda)를 구사하는 아디와시가 많이 있다. 인도 연방에서는 아디와시가 차지하는 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주이다. 아디와시들은 전통적으로 화전 경작을 하는 사람들로서 집약 농업이나 산림 개발 등에 대해 저항감이 심하고, 개발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토지 소유제나 사회 관계에 적응을 하지 못해 실로 오랫동안 저항해 오고 있다(Rao 1996, p. 418). 인도 독립 후 중앙 정부로부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장 적게 받은 곳이라 아직도 도로, 철도, 전력, 항만 등 제반 기반 시설이 매우 낙후돼 있다. 따라서 1999~2000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의 주민이 전체의 47.15%로 인도 전체 평균 26.10%에 비해 약 두 배 정도 되는 인도 최고의 빈곤 낙후 주이다. 동부 해안 평야지역, 특히 부바네슈와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웃 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쓰는 벵갈리, 힌디, 델루구 등도 널리 쓰인다.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 해안을 따라 해안 평야가 발달해 있고, 마하나디(Mahanadi) 강이 이곳으로 흘러가면서 삼각주를 형성하여 벼농사가 널리 행해지는데 일 년 이모작이 가능하고 오릿사 인구의 50% 정도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 해안선이 거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항구가 발달하지 못했지만 그 유일한 예외가 현재 한국의 포스코(POSCO)가 제철소 공사를 계획중인 빠라디쁘(Paradip) 지역이다. 대부분의 경제력은 해안 평야 지역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후자에 의한 전자의 내부 식민이 영국 지배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그에 대한 전자의 반발이 심해져 가고 있다. 부바네슈와르에는 20여 개의 대학과 연구소가 있고 병원, 은행 등 주요 기관이나 복지 시설이 모두

부바네슈와르에만 집중해 있다(인도 최고의 3대 엘리트 양성 교육 기관이라고 하는 인도공과대학(IIT), 전인도의과대학(AIIMS), 국립사회과학연구원(NISER)이 모두 한 도시에 세워진 곳은 부바네슈와르뿐이다). 부족지역에는 기초적인 교육, 의료, 보건 등의 시설이 거의 없어 특히 교육, 출산, 전염병, 여성 노동 등의 부문에서 인도 연방 중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중부와 북서부 그리고 서부는 인도 최고의 천연자원 보고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산악 지대인데 특히 석탄, 철광석, 망간, 보크사이트, 크롬,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주민들은 자연 환경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산악 지대는 산간 부족 인구가 22.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그 부족민들 가운데 73%가 절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87%가 개발 계획의 주 대상인 자즈뿌르(Jajpur), 라이카드(Rayagad), 께온자르(Keonjhar), 순다르가르(Sundargarh), 꼬라뿌뜨(Koraput), 간잠(Ganjam), 풀바니(Phulbani) 군 등에 집중되어 있다. 헌법 부칙에 부족민 보호 구역으로 특별히 지정된 부칙 제5(Schedule-V) 지역은 정부가 74%의 토지를 보유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수할 수 있어 손쉽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오릿사 주정부는 산악 지대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산악 부족민들을 이주 정착시키는 데 대한 정책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운데 자즈뿌르의 깔링가나가르(Kalinganagar) 마을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12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2000년대 들어 오릿사 각지에서 진행된 산업화를 둘러싼 주정부와 부족민의 이해가 충돌한 대표적인 예가 되면서 향후 유사한 일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전에 시행되었던 개발 과정에서 주정부가 이주민들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않았고 그 결과 집단 수용소에서 최악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개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낙살 반군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환경 운동가들의 영향력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광산 개발을 통해 오릿사 주의 경제가 발전되더라도 주민들이 희생과 고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서벵갈 싱구르에서 따따 자동차를 몰아낸 사건과 오릿사 깔링가나카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민들은 개발과 이주에 대해 극심한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하다.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정부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와 기업의 행정력 위에서의 사업 진행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문화적 토대

오릿사 주는 문화 유산이 매우 풍부한 주다. 인도 최고의 전통 무용 가운데 하나인 오딧시(Odissi)는 이곳 오릿사의 전통 무용이다. 이카뜨(ikat)라고 하는 전통 방식의 염색을 비롯한 오릿사 특유의 전통 수공예도 잘 보존돼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아디와시들이 보존하고 있는 고유의 의식주 문화는 훌륭한 문화 유산으로 인정받는다. 주도인 부비네슈와르(Bhubaneswar)는 1천 개에 달하는 사원을 가지고 있고, 힌두 최고 성지 가운데 하나인 뿌리가 벵갈 해안에 자리 잡고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힌두교 순례자들이 오릿사 주로 몰려든다. 부비네슈와르의 링가라자(Lingaraja) 사원이나 뿌리의 자간나트 사원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높은 부가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산업으로 오릿사의 낙후성과 보수성의 기반이 되고 있기도 하다.

종교적으로는 토착 신앙의 요소가 강하고 고대에는 불교의 영향력도 강하여 오랫동안 힌두교를 중심으로 종교의 관용적 전통이 유지되어 왔다. 자간나트 신앙으로 대변되는 힌두 종교의 관용적 태도는 힌두교의 대전통과 토착 신앙이 조화롭게 섞여 발전한 것이다. 라타 야뜨라(ratha yatra)라고 하는 거대한 수레 행렬 의례는 뿌리를 성지로 하여 동부 인도는 물론 인도 전역에서 많은 순례자를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뿌리에서는 수백 명의 남성이 수레(ratha, 라타)에 태운 사원 신상(mūrti, 무르띠)을 마을로 끄는 행렬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줄을 잇는다. 수레 위에는 예쁘게 꾸민 코끼리와 말 그리고 기세지(sādhu, 사두)가 종종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함께 동반한다. 힌두는 죄나 악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경배 의례를 하고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 이 행렬에 참가한다. 성지 순례 기간에는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참가자 사이에 카스트의 제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릿사, 벵갈 등 동부 인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인도적 도시 중심의 현상으로서 보수 힌두 우파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기독교, 이슬람과 같은 외래 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공공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2008년에는 힌두 극우 집단이 기독교인을 공격하여 수녀를 살해하고, 강간하고 교회, 집, 고아원 등을 불 질렀다. 세계힌두 회의와 국가자원봉사단가족(Sangh Parivar)이 주도한 이 소요 속에서 기독교인 수십 명이 살해되고, 수십 명이 강제 개종당했고, 이에 만모한 싱 수상이 ‘국가적 치욕’이라고 하며 자제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1999년에도 힌두 극우 집단이 오스트레일리아 목사를 살해하기도 했다. 더 이상 오릿사가 관용적 종교의 토대를 유지하는 곳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이다. 역사적으로 힌두교 가운데 가장 왕성한 관용적 태도를 보인 오릿사에서 타 종교 공동체와 폭력 갈등이 벌어진 것은 오릿사가 다른 곳보다 아디와시가 많이 사는 곳이고, 낙후된 산악지역이 많으며, 중앙 정부로부터 교육이나 보건 위생 등에 대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 지대에 놓인 곳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 상당한 개종자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시 범인도적 종교공동체주의 갈등을 야기시키려던 힌두 극우 집단에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로 작용했다. 이렇듯 아디와시의 비중이 높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조건은 외래문화나 산업화를 통한 개발이나 발전에 대한 극렬한 저항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3) 정치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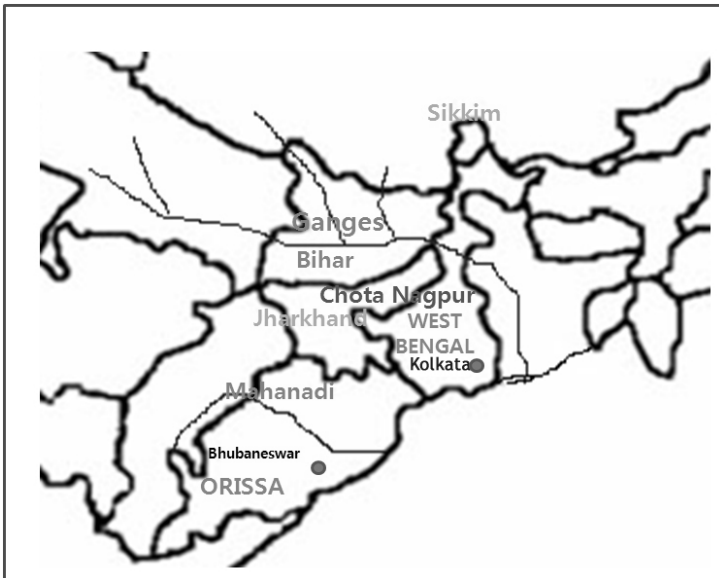
오릿사는 인도 연방 내에서 다른 어느 주보다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지역이고, 양쪽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카리스마와 힘을 가진 정치 권력을 갖지 못한 곳이다. 이러한 구조는 오릿사의 종족 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오릿사는 애초 동인도회사의 식민 지배 시기에 해안 평야 지역이 벵갈 관구에 속했고, 서부와 북부 산악 지대는 마드라스 관구에 속했으나 1935년 인도통치법에 의거해 두 지역이 오릿사로 통합되고, 이후 지역의 공식 언어가 오리아어로 지정되고 각급 학교에서 오리아어가 의무로 교육됨으로써 산악 지대의 반발이 심하게 되었다. 그후 오릿사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부바네슈와르 중심의 수도권 권력은 부족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팔아 막대한 조세 수입을 얻으면서도 그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에는 전혀 집중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지역 소외를 줄이는 데 노력하지 않았다. 이처럼 수도권과 부족 지역 간의 극대화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정부 권력이 효과적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릿사 주정부의 주요 조세 재원인 철광석 광산이 집중되어 있는 여러 군(district)에 부족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낙살 반군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상대적으로 현재의 집권 정당인 비주국민당(BJD: Biju Janata Dal)의 영향력이 미미하다. 집권 여당의 영향력이 이처럼 미미한 예는 인도의 다른 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오릿사 주정부의 리더십이 약한 데는 집권 정당의 태생적 한계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비주국민당은 인도국민회의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정당으로 1997년 현 주수상인 나인 빠뜨나익(Naveen Patnaik)의 아버지인 비주 빠뜨나익(Biju Patnaik)에 의해 창립된 신생 지역 정당이다. 비주국민당은 1997년 인민당(Janata Dal)에서 분당하여 인도국민당(BJP)이 이끄는 민족민주연맹(NDA)에 참가하여 중앙과 주 양쪽 모두 정부를 구성하였으나 2009년 선거 이후 인도 국민당과 결별한

후 주정부만 단독으로 구성하고 있다. 현 집권 여당이 비록 2000년 주의회 선거에서 지난 선거보다 두 배 많은 의석을 차지하긴 하였지만, 인도 국민당과의 연립 정부 구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위치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빠뜨나의 주수상이 연립 정부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상대인 여러 주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빠뜨나의 정부의 경제 정책, 특히 부족지역의 철광석 개발권을 외래 자본(즉 한국의 포스코)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의 리더십의 한계를 부채질하고 있다.

빠뜨나의 정부 제1의 정책은 낙후된 오리스라 주의 경제 개발이고, 현재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의지로 부족지역의 철광산 개발에 명운을 걸고 있다. 하지만 빠뜨나의 정부는 구조적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야당 지도자들과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야당 지도자들은 빠뜨

■ 그림 2-1. 동부 인도의 주와 지형 ■



나익 정부의 광산 개발에 분명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뜨나익 정부는 권력을 놓칠 각오로 그들과 계속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철광산 개발정책을 포기하면서 그들과 연립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서 절묘한 정치적 타협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부족지역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낙살 반군은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이러한 점들이 향후 오릿사 주 정치의 미래를 가늠하는 결정적 잣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제3장

인도 동부지역의 경제구조

1. 경제 현황 및 특징

가. 낮은 소득과 저성장

동부의 서벵갈과 오릿사는 인도에서 소득이 낮은 주들이다. 서벵갈의 경제 규모는 2007/2008년 기준 22조 20억 루피이고, 오릿사는 7,346억 루피로 서벵갈이 오릿사의 약 3배 정도 크다. 1인당 소득은 서벵갈이 2만 3,000루피, 오릿사는 1만 6,000루피이다. 동 기간 서벵갈의 1인당 소득 순위는 28개 주에서 16위를 차지하였고, 오릿사는 21위를 차지하여, 두 주 모두 중하위권과 최하위권에 위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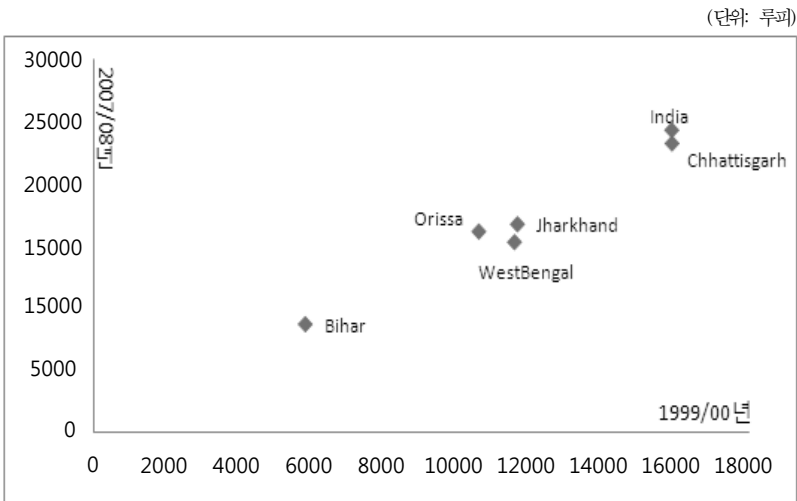
■ 표 3-1. 동부의 서벵갈과 오릿사의 경제 현황(2007/08년 기준) ■

구분	단위	오릿사	서벵갈
GSDP(억 달러)	억 루피	7,346	22,020
1인당 소득(루피)	루피	16,149	23,229
인구	백만 명	39.5	86.6

자료: 인도통계청.

이렇게 1인당 소득 면에서 동부 인도는 인도의 전체 평균 수준보다도 낮으며, 소득변화의 속도도 인도 전체의 평균보다 낮다. 1999/2000년 대비 1인당 소득의 변화가 인도 전체보다 느리고, 주변 주(州)인 자르카드보다도 느리다. 다만 오릿사가 서벵갈보다 약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 격차는 크지 않다.

■ 그림 3-1. 오릿사 및 서벵갈과 주변 주의 주별 1인당 소득변화 비교 (1999/2000~07/2008년) ■



자료: 인도통계청.

이처럼 낮은 소득 수준은 단순히 GSDP나 1인당 소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엔겔 계수에서도 서벵갈과 오릿사는 전체 인도 평균보다 높다. 더욱이 시간이 가도 엔겔 계수가 전체 인도 평균보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벵갈의 경우 농촌 부문은 2004/2005년까지 엔겔 계수가 낮아지다가, 이후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 부문에서도 최근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2. 동부 인도의 엥겔 계수 추이

구 분	1999/2000		2004		2004/2005		2005/2006		2006/2007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서벵갈	65.88	52.28	59.75	45.51	58.69	43.4	59.29	39.76	58.91	40.21
오랏사	64.11	56.95	58.44	47.65	61.56	49.93	56.58	43.76	57.86	42.15
인도 전체	59.4	48.06	53.94	41.64	55.05	42.51	53.34	39.96	52.28	39.41

자료: 오랏사 주정부, "Directorate of Economics & Statistics, Planning & Co-ordination Department, 2009," *Economic Review 2008-09*.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면에서도 동부 인도는 인도 전체 대비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주별로 격차가 심하고,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인도에서 오랏사 주가 월평균 1인당 소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459루피를 보이는 반면, 서벵갈은 630루피이다. 도시의 경우 서벵갈이 1,371루피를 소비하고 있다. 동부 인도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농촌과 도시 두 부문 모두에서 인도 평균보다 훨씬 아주 낮은 수준이다.

표 3-3. 동부 인도의 주별 월 평균 1인당 소비 지출 현황(2006/07년)

구 분	월평균 1인당 소비 지출		평균가계규모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오랏사	459	1,072	4.6	4.1
서벵갈	630	1,371	4.6	3.8
인도 전체('2006/07년)	695	1,312	4.8	4.3
인도 전체('2005/06년)	625	1,171	4.9	4.3
인도 전체('2004/05년)	579	1,105	4.9	4.4

자료: 인도 통계청

인도 전체에서 월평균 1인당 소비 지출 순위를 보면, 농촌 부문에서는 오랏사가 지속적으로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벵갈은 인도의 중간 정도의 순위에 있다. 다만 최근에 도시 부문에서는 오랏사의 소비 지출 순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벵갈은 전체 순위에서 상위권의 소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표 3-4. 동부 인도의 주별 월평균 1인당 소비 지출 순위 ■

구 분	농촌			도시		
	06/07	05/06	04/05	06/07	05/06	04/05
오릿사	17	16	17	13	16	16
서벵갈	11	10	9	5	6	5

자료: 인도통계청(2008), NSSO,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6/07.

여기에서는 동부 인도에서 특정 수준 이하의 소비 지출을 하는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6/2007년 인도 전체에서 월평균 음식 지출 비용은 농촌은 365루피이고, 도시가 580루피 정도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동부 인도의 월평균 365루피와 580루피를 지출하는 인구의 비중을 분석해 보자. 우선 농촌 부문을 보면, 오릿사에서는 44% 이상이 한 달 365루피, 하루 12루피 이하를 소비 지출하고 있으며, 서벵갈이 18%, 즉 인도 전체에서 평균 정도의 소비 지출을 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 하루 19루피 이하로 지출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즉 서벵갈과 오릿사의 농촌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3-5. 동부 인도의 월평균 1인당 소비 지출의 특정 수준 이하 인구 비중(2006/07년) ■

(단위: %)

구 분	농촌		도시	
	Rs.365이하 (12루피/1일)	Rs.580이하 (19루피/1일)	Rs.365이하 (12루피/1일)	Rs.580이하 (19루피/1일)
오릿사	44.40	37.60	43.00	31.00
서벵갈	18.30	21.11	12.00	17.00
인도 전체	18.70	21.80	12.70	1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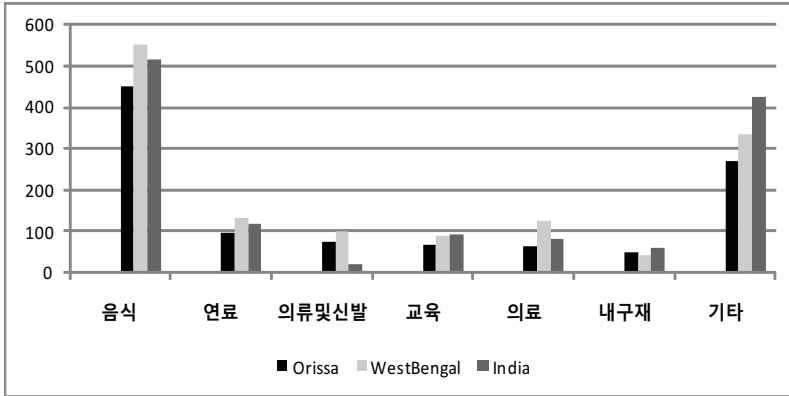
자료: 오릿사 주정부(2009), Directorate of Economics & Statistics, Planning & Co-ordination department, Economic Review 2008-09.

다음으로는 주별 소비 지출 형태에 대해서 우선 도시지역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음식 소비 지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연료, 의료 및 신발 등의 순으로 소비가 많다. 교육이나 의료 등의 소비도

역시 낮고, 실질적인 내수시장으로 연결되는 내구재 소비는 더욱 낮다. 동부 인도는 생활기초 분야의 소비 지출이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 그림 3-2. 동부 도시지역의 월평균 1인당 소비 지출 형태(2006/07년) ■

(단위: 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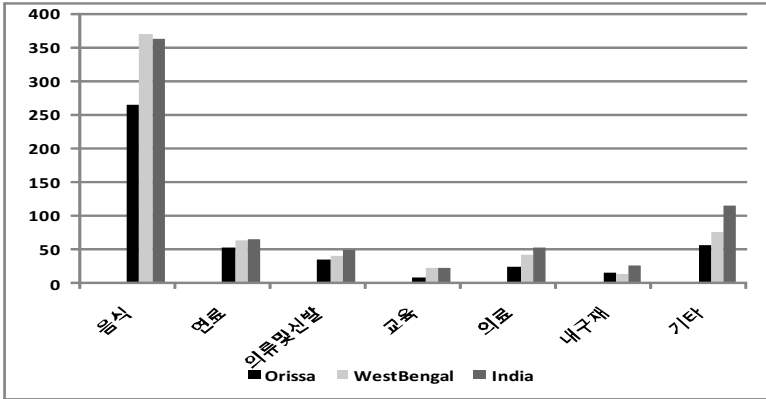


자료: 인도통계청(2008), NSSO,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6/07.

다음으로 농촌지역의 소비 지출 형태를 보면, 음식에 대한 지출이 절대적으로 높다. 연료가 한 달에 50루피 정도 지출되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 및 신발 등에 지출되고 있다. 즉 동부 인도의 농촌에서는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지출 항목인 의식주 분야의 지출이 가장 크다. 이에 반해 내구재 소비는 평균 한 달 1인당 15루피 정도 소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지출 형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더 심한 경제적 빈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동부 농촌지역의 월평균 1인당 소비 지출 형태(2006/07년)

(단위: 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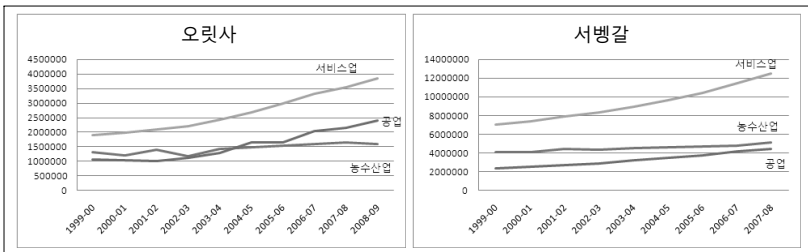


자료: 인도통계청(2008), NSSO,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6/07.

나. 높은 농촌 의존과 제조업 부진

산업구조 면에서도 서벵갈과 오릿시는 공업보다는 농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벵갈의 경우 전형적인 인도경제의 산업구조, 즉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농업과 공업 순의 산업구조를 가진 반면, 오릿시의 경우는 서비스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공업과 농업 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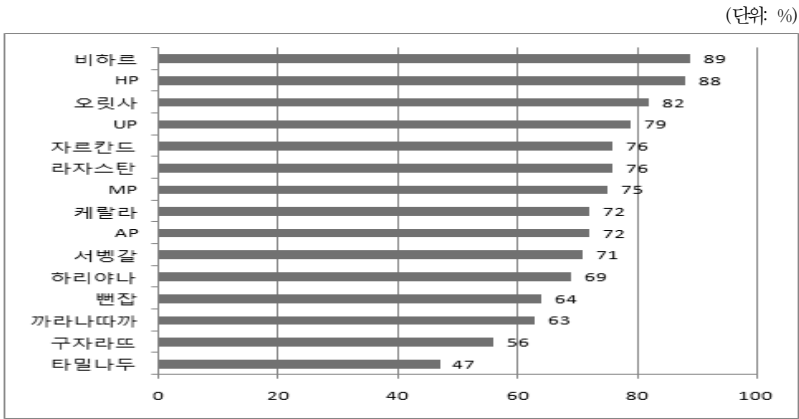
그림 3-4. 동부 인도의 주별 산업구조



자료: 인도통계청.

하지만 서벵갈과 오릿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각각 71%와 82%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농업 의존도가 크다. 이는 인도 동부지역의 도시 형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나는 대신에 농촌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3-5. 인도 주요 주의 농촌인구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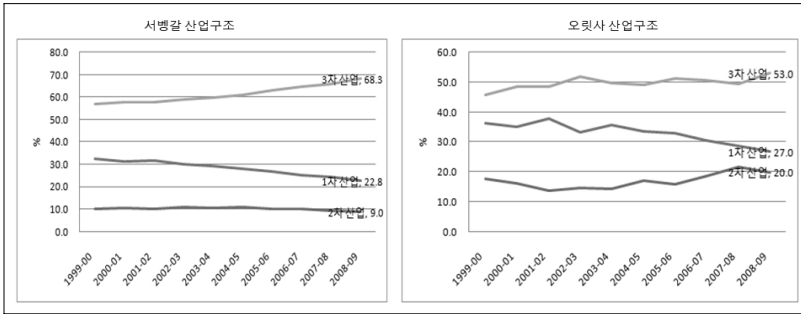


자료: Mckensey(2010).

산업구조를 주별로 살펴보면, 서벵갈은 1차 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대신에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차 산업의 비중은 1999/2000년 10%에서 2008/2009년 9.0%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즉 1차산업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2차산업은 감소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오릿사의 산업비중도 서벵갈의 경우처럼 1차산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2차산업은 2002/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상승하여 2008/2009년 20%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부 인도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신 2차산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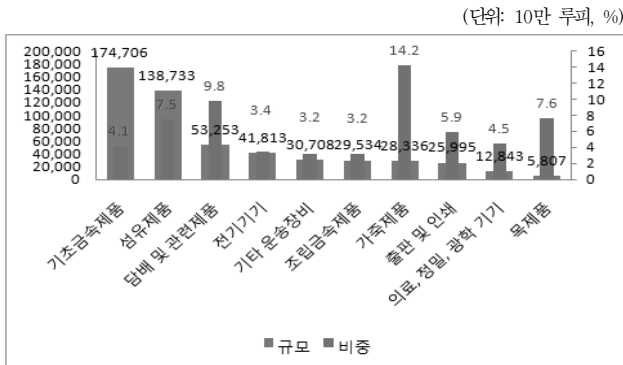
그림 3-6. 서빙갈과 오릿사의 산업 구조 변화 추이



자료: 인도통계청

제조업 부문을 순부가가치 규모 및 인도 전체의 비중으로 자세하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서빙갈의 경우 주요 제조업은 기초금속제품, 섬유제품, 가죽제품, 담배 및 관련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즉 서빙갈의 제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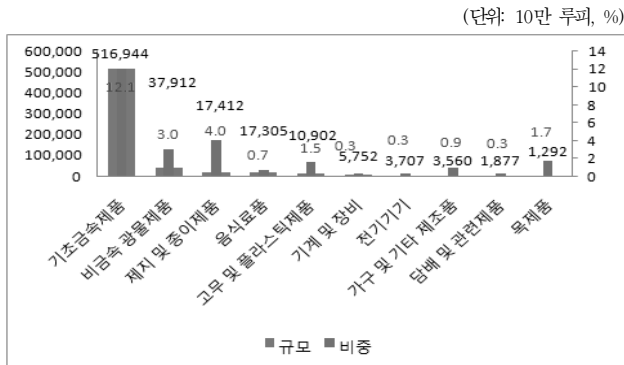
그림 3-7. 서빙갈 제조업 부문의 순부가가치 및 인도 전체 비중



자료: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Office of the Economic Adviser,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2007-2008.

오릿사의 경우 서벵갈보다 제조업이 더욱 특정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즉 오릿사의 주요 제조업은 광물을 기초로 하는 기초금속제품이 거의 전부이다. 그 외 비금속 광물제품이 주요 산업으로 나타났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다. 결과적으로 오릿사의 경우 제조업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3-8. 오릿사 제조업 부문의 순부가가치 및 인도 전체 비중 ■



자료: Handbook of Industrial Policy and Statistics, Office of the Economic Adviser,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2007-2008.

동부 인도의 공장 수, 노동자 수, 임금 등을 마하리쉬뜨라와 타밀나두 주와 비교해 보면, 공장 수에서는 서벵갈이 마하리쉬뜨라의 1/3, 타밀나두의 1/4 수준으로 매우 적다. 이에 반해 노동자 수는 마하리쉬뜨라의 1/2도 안되며, 타밀나두의 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다. 오릿사는 마하리쉬뜨라와 타밀나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공장 수와 노동자 수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서벵갈의 약 1/3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표 3-6. 동부 인도와 주요 주의 공장 및 노동자 수와 임금수준 비교(2007/08년)

구분	공장 수	노동자 수	노동자 수/공장 수	전체 임금 (10만 루피)	1인당 임금 (루피)
서벵갈	5,987	421,280	70	310,289	73,654
오릿사	1,822	145,276	80	129,957	9,455
마하라쉬뜨라	15,107	797,443	53	528,857	66,329
타밀나두	21,042	1,283,478	61	644,041	50,179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Central Statistics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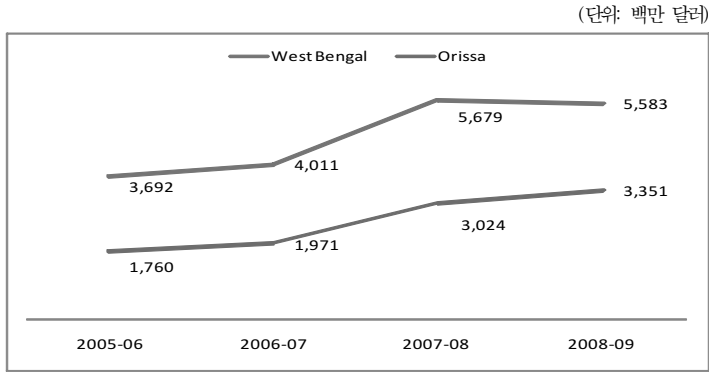
공장 수 대비 노동자 수의 비교에서, 서벵갈과 오릿사는 마하라쉬뜨라와 타밀나두에 비해 매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노동자의 임금을 보면, 서벵갈이 마하라쉬뜨라나 타밀나두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벵갈의 경우 공장은 마하라쉬뜨라나 타밀나두보다 훨씬 적은 것에 비해 노동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고, 임금도 더 높아 서벵갈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릿사의 경우 공장 수는 적지만, 공장 수 대비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당 임금 수준이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릿사에 노동기용인구는 많으나 고용할 사업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임금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 전통산업 중심의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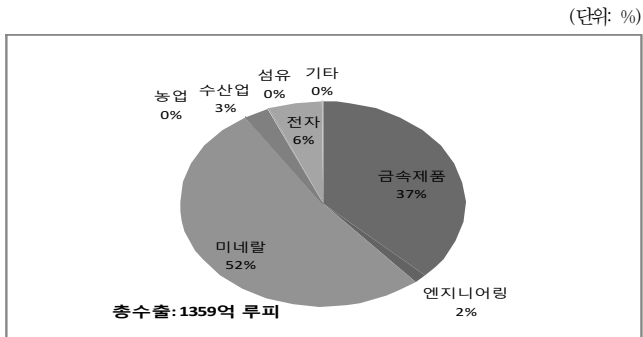
동부 인도의 수출입은 그 양과 수준이 미미하고, 수출은 일부 특정상품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서벵갈의 경우 2005/2006년에 37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나, 2008/2009년에는 55.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오릿사의 경우 같은 기간 17억 달러에서 33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 3-9. 서벵갈과 오리사의 수출 현황



자료: DGCI,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그림 3-10. 오리사 주의 주요 수출품목



자료: 오리사 주정부(2009), Directorate of Economics & Statistics, Planning & Co-ordination department, Economic Review 2008-09, pp. 9-28.

오리사의 수출은 광물이 약 50%로 가장 많고, 광물과 관련된 금속제품이 40%로 광물 다음으로 많다. 나머지는 전자 및 엔지니어링 제품의 수출이 차지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서벵갈의 경우는 엔지니어링 제품, 석유제품이 가장 많고, 나머지로 가죽, 황마, 차 등이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하다.

표 3-7. 서벵갈의 주요 수출상품 현황

(단위: 천만 루피)

	2007/08	2008/09
जूट	1,367	1,375
चा	2,034	2,688
엔지니어링제품	149,800	125,377
가죽 및 가죽제품	13,673	14,798
석유제품	114,191	123,397
석탄, 갈탄, 토탄	276	348
합 계	572,768	840,755

자료: Director General of Commer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Government of India(2009).

라. 풍부한 자원

서벵갈과 오릿사는 인도 동해인 벵갈만에 위치해 있다. 오릿사는 45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위쪽으로는 자르칸드와 서벵갈, 서쪽으로는 찰디스가르와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안드라 빠라데시와 접해 있다. 총면적은 15만km²로 전체 인도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오릿사의 산업은 주로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1,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산림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살고 있다. 오릿사는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철, 보크사이트, 니켈, 석탄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바다를 접하고 있어, 인도의 주요 항구 가운데 하나인 빠라디쁘 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구는 물동량 42억 4,38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큰 항구이다. 그 외 드라마라(Dramara), 끼라타니아(Kiratania), 아스트랑가(Astranga) 항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빠라디쁘 항을 제외하고는 물동량 수용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벵갈은 콜카타 항과 할디아(Haldia) 항이 있으며, 두 항구는 인도 동부 지역의 관문이다. 약 10,000여 개의 공장이 서벵갈 주에 있으며, 전력 사정은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서벵갈에서는 섬유산업이 유명하다. 콜카타 항과 할디아 항은 연간 물동량 수용량이 4,600만 톤에 이르며, 두 항구 모두 화물 수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현대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

한 3,000에이커 규모의 항구특별경제지역이 꼴삐(Kulpi)에 착공될 예정이며, 콜카타 국제공항도 새로운 종합 물류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1) 천연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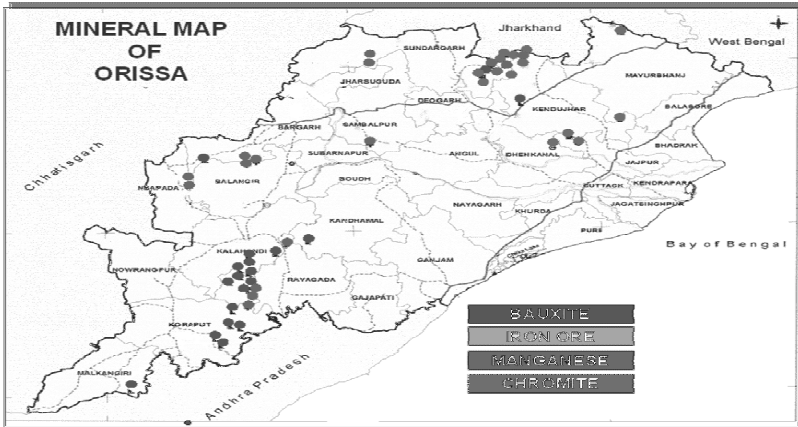
인도 동부지역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오릿사 주는 전 인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크로마이트 95%, 니켈 92%, 코발트 69%, 보크사이트 55%, 티탄 51%, 석회석 40%, 납석 35%, 철 33%, 규선석 26%, 내화점토 25%, 석류석 25%, 지르콘 25%, 석탄 24%, 바나듐 20%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표 3-8. 동부 인도의 천연자원 매장 현황 ▣

주	항목	단위	매장량	보유비중
오릿사	Chromite	천 톤	202,955	95
	Nickel ore	백만 톤	174.5	92
	Cobalt ore	백만 톤	30.9	69
	Bauxite	천 톤	1,808,271	55
	Titaniferous mag.	톤	21,230,000	51
	Limestone	천 톤	1,738,360	40
	Pyrophyllite	톤	12,281,019	36
	Iron ore	천 톤	4,760,625	33
	sillimanite	톤	19,268,526	26
	Fireclay	천 톤	175,485	25
	Garnet	톤	14,146,101	25
	Coal	백만 톤	63,233	24
	Zircon	톤	1,045,782	24
Vanadium	톤	4,864,795	20	
서벵갈	Apatite	톤	16,279,017	-
	Coal	백만 톤	28,334	-
	China Clay	천 톤	420,671	-
	Fireclay	천 톤	4,501,250	-

자료: Indian Bureau of Mines, Indian Minerals Year Book 2008.

그림 3-11. 오랏사의 자원보유지역 현황



자료: 오랏사 주정부.

동부 인도는 자원이 풍부한 만큼, 자원 생산이 인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서벵갈의 경우도 26억 루피의 자원 생산을 기록했다.

표 3-9. 동부 인도의 주요 주별 미네랄 생산 현황

(단위: 천만 루피)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오랏사	2,910.4 (5.35)	3,694.1 (6.36)	3,877.7 (6.2)	6,148.6 (8.41)	6,622.1 (7.79)	8,340.0 (11.25)	1,0416.8 (12.53)
서벵갈	2,267.4 (4.17)	2,357.6 (4.06)	2,407.9 (3.85)	3,004.6 (4.11)	3,174.5 (4.19)	2,819.6 (3.8)	2,605.4 (3.13)

주: () 안은 인도 전체 생산대비 비중.

자료: 오랏사 주정부.

2) 자원 관련 산업

오랏사 주에는 알루미늄, 석면, 시멘트, 비료, 철강, 선철, 해면철, 합금철, 내화, 실리콘 카바이드, 합성 금홍석 등이 발달해 있으며, 그중 해면철 기업

과 합금철 기업들이 많이 상주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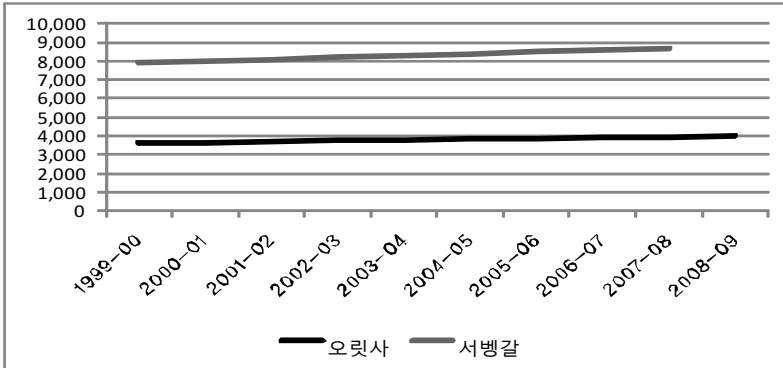
서벵갈에는 석면, 연마제, 세라믹, 화학, 전극, 비료, 유리, 철강, 선철, 해면철, 합금철, 내화, 석유정제 등의 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 중에서 해면철과 합금철 기업들이 많이 상주하여 생산하고 있다.

3) 풍부한 노동 인력

동부 인도의 인구는 인도 전체 인구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벵갈에는 9,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오릿사에는 4,0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인도 전체 인구 중 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3%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동부 인도에는 약 7천만 명 정도의 경제 가능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그림 3-12. 동부 인도와 주변 주의 인구 현황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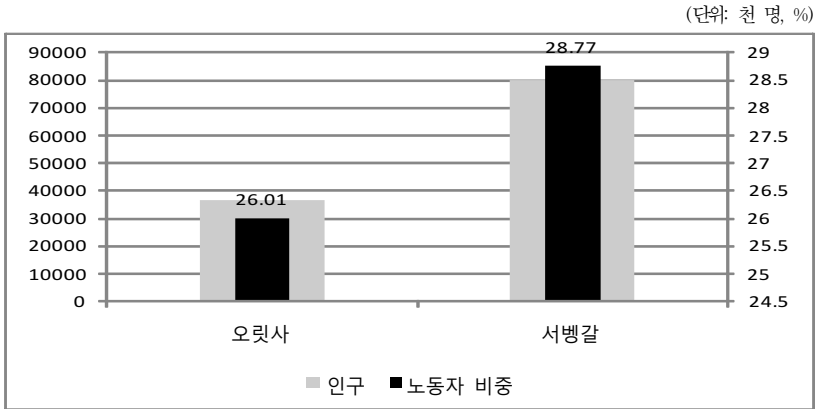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자료: 인도통계청.

동부지역의 주별 노동자 비중을 보면, 오릿사는 26%, 서벵갈은 28% 수준이다. 이 정도의 비중이 동부 인도의 경제 인구라고 추정해보면, 그 인구 수는 약 3,100만 명 정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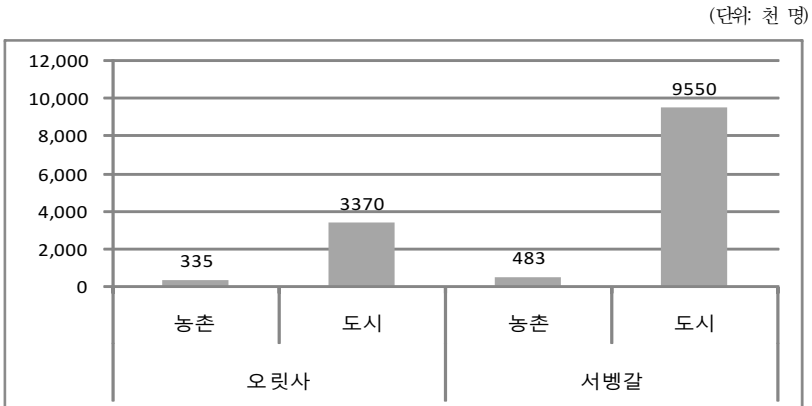
그림 3-13. 오릿사 및 서벵갈의 인구 수 및 노동자 비중(2001년)



자료: 인도통계청, Census 2001

동부 인도의 사업장 근로자 수는 2005년 기준 서벵갈의 도시부문이 955만 명, 농촌 48만 명, 오릿사는 도시 330만 명, 농촌 3만 명으로 서벵갈이 오릿사보다 약 3배가 더 많다.

그림 3-14. 오릿사 및 서벵갈 주의 사업장 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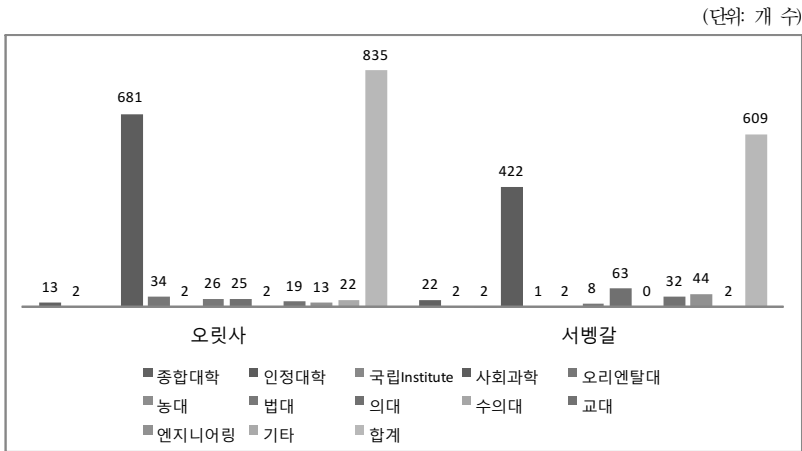


자료: 인도통계청, Fifth Economic Census 2005 Fact Sheet.

결과적으로, 동부 인도의 인구 및 노동 여건을 보면, 인도 전체 인구의 23% 이상이 거주하고, 노동 인력도 그에 비례해 풍부한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는 인력은 47%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안 되는 인구만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구는 더욱 적다. 즉 인구 대비 참여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업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동부 인도에 있는 주들의 인력 수준을 보기 위해 주별 대학 현황을 살펴 보면, 대학은 오릿사에 835개, 서벵갈에 609개가 있어, 두 주에 상당한 수준의 고급 인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면적과 인구를 대비해서 보면, 오릿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어 풍부하고 수준 높은 고급 노동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그림 3-15. 오릿사와 서벵갈의 대학 현황 ■



자료: 인도통계청(2010. 8. 20), India Statistics, Education.

하지만 동부 인도의 문자해득률을 보면, 오릿사의 경우 도시에서 남성 90%, 여성 79%인 반면 농촌에서는 각각 73%와 48%로, 도시와 농촌 간에

격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서벵갈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3-10. 동부 인도의 7세 이상 문자해득률(%) ▮

구분	도시		농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오릿사	90	79	73	48
서벵갈	90	80	80	62
인도 전체	89.4	77.1	75.9	53.5

자료: 인도통계청(2008), Household Consumer Expenditure in India 2006-07.

마. 최근 친산업적 투자정책

1) 서벵갈

서벵갈 주정부는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기업 및 대규모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며, 균형 있는 산업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친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정부는 IT/ITES 산업의 발전, 중소기업 지원, 수출확대 등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노동법을 단순화하고, IT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사업 등록비 면제, 특별경제구역의 설립 확대와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주 및 지방세 면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 허가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기존보다 편리성 확대, 수출 보조금 지급, e-거버넌스 프로젝트 추진, 상공부에 수출 지원 창구 설치, 특정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서벵갈의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여 바이오 자원의 도식화 및 발굴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바이오산업에 대한 벤처 자금 유인 및 은행 신용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즉 서벵갈 주정부는 빈곤한 주의 경제성장 및 발

전을 위해 최근 산업부문에 친투자적이면서도 특정 정책을 추진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오릿사

최근 오릿사 주정부는 오릿사 2022(Orissa@2022) 등을 발표하면서 주 경제발전 및 성장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릿사 정부는 정책 개혁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대한 잠재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 및 관광에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동 분야의 경쟁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오릿사 정부의 경제발전계획은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추구, 고용 기회 확대,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빈곤 감축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농촌 및 도시 인프라 확대, 농업 및 임업의 성장, 중소기업 지원, 교육 개선, 환경 등이다. 우선 오릿사의 촌락 절반 정도가 소규모이고, 거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리 오지를 연결하는 교통 및 전력 인프라를 확대한다. 둘째, 오릿사는 인도에서 도시화율이 15%로 가장 낮은 주이지만, 도시로 집중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감안하여 도시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오릿사를 떠나지 않고 거주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셋째, 오릿사 인구의 85%가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저장 창고를 확대하는 등 농업 및 임업 생산을 증진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한다. 넷째, 진학률은 높지만 퇴학률이 높아 퇴학률을 낮추기 위해 교사 육성,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한다. 다섯째, 거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고, 무엇보다도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여섯째, 광업 기반 산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도입 및 기존 산업 지원, 광업관

런 가공 및 부가가치 창출,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하부 산업, 화학 및 비료, 농업 및 가공 식품, 수출 산업, IT 산업 육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2. 경제 구조의 사회문화적 상관관계

인도 동부 서벵갈과 오리사 주는 인근의 비하르, 찰리사르, 자르칸드 등과 더불어 인도 내에서 가장 개발이 낙후된 지역인 반면에 인구는 가장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서벵갈의 경우 동인도회사의 식민 착취 영향이 많았고 그에 따라 빈부 격차가 극심하고 계급 간의 갈등과 오랜 카스트 간의 갈등이 매우 첨예하여 근대 이후 노동자, 농민 투쟁이 가장 치열하였고, 상층 카스트와 불가촉민·달리뜨 간의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그 결과 공산당과 마오주의 반군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오리사의 경우 인도 내에서 천연자원이 가장 풍부하여 인도 내에서는 물론이고, 외부 다국적기업이 자연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도가 다른 주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어서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들어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이 국내외적으로 몰려들어 연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상투적인 권력형 개발정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가. 서벵갈

1) 공산당의 집권과 경제정책

인도 독립 전에 벵갈은 200만 에이커에서 황마 122만 톤을 생산하는 인도 최대의 섬유산업 지역이었다. 또한 인도 전체 차(tea)의 7%인 1,800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들이 독립 전에 서벵갈

에 집중되어 있었다(KPMG 2007). 그리고 영국의 지배하에서 육성된 수출 지향적 가공산업도 상당히 발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까지 서벵갈 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해 있었다. 영국 식민 시기에 영국은 벵갈 지역에 처음으로 무역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다양한 생산업체들도 설립하였다. 1820년에 석탄산업이 시작되었으며, 19세기 전반기에 철도 및 수로 교통 인프라가 도입되면서 엔지니어링 산업이 나타났다. 또한 의류에 필요한 전통적인 황마 재배로 황마산업이 크게 부흥하였다. 석탄, 엔지니어링, 황마, 철강 등이 벵갈 지역의 전통산업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산업의 형성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된 산업화가 나타났다(Sen 2009).

하지만 1947년 벵갈 지역이 동벵갈과 서벵갈로 나누어지면서 서벵갈로 피난민들이 급속히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가구당 경작지의 축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황마, 차와 같은 서벵갈의 주요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된다. 그 당시 동파키스탄(현재 방글라데시)으로부터 유입되는 피난민은 2,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규모는 유럽국가의 전체 국민 수보다 많은 인구였다.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유입은 서벵갈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게 된 것은 물론 이후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³⁾ 더욱이 이러한 산업들이 영국인으로부터 경쟁력이 없는 인도인에게 양도된 것은 서벵갈 지역의 산업 몰락과 연계된다(Bagchi 1972).

또한, 인도 중앙정부가 추진한 두 가지 경제정책이 서벵갈 지역의 대형 산업을 축소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 정부는 독립 후 자립 경제 확립 및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하여 ‘석탄 및 철의 운임 균등화 정책(freight equalization for coal and steel)’과 ‘수입 대체 산업 정책(import substitution)’

3) 피난민 문제는 토지와 식량 문제를 날기도 하고 대도시인 콜카타에 여러 가지의 도시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서벵갈 지역에서 매우 발달된 황마와 같은 고도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물론 제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실질적으로 산업의 축소를 유발시키게 된다. 특히 인도 중앙정부가 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서벵갈 지역이 중앙정부를 더욱 불신임하는 것은 물론 민간 투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인프라 투자 축소는 서벵갈 지역의 엔지니어링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산업의 축소는 실업이 조직화된 제조업 분야에 막대한 실업을 유발하게 된다(Raychouldhuri *et al.* 2007).

이러한 산업정책은 서벵갈에서 점진적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소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물론 조직화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조직화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업체들이 조직화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비조직화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비조직화 사업체들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비조직화된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전투적 노동 운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롭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서벵갈에서는 조직화된 사업체를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비조직화된 사업체로 전환해나갔다. 결과적으로 서벵갈에서는 비조직화된 제조업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Banerjee *et al.* 1999; Bagchi 1982, 1998).

1970년에서 1980년대는 심각한 전력 부족, 파업, 그리고 격렬한 마르크스주의-낙살(Marxist-Naxalite) 운동의 시기로 막대한 사업에서 민간 자본가들의 참여를 반대하는 세력이 확대되면서 대단위 자본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은 계획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추진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은 서벵갈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으로 경제는 깊은 침체 상태에 빠져든다. 1966년 서벵갈에서는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연이어 1971년 방글라데시 해방 전쟁이 발발한다. 이 전쟁으로 다시 한 번 방글라데시로부터 수많은 피난민이 서벵갈로 유입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유입은 인프라 개발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nnett & Hindle 1996). 이후 1974년에는 천연두가 창궐하여 수천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혼란으로 공산당이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으면서 1977년에 당시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을 누르고 집권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집권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서벵갈의 공산당 집권은 세계에서 유일한 선거를 통한 공산당 집권이며 유례없는 장기 집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52~67년 기간은 수출 지향적 중앙정부의 정책이 서벵갈에 적용된 되는 시기로 정의되며, 1967~77년까지는 혼란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77년부터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서벵갈은 최장기 공산당 집권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서벵갈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공산당 정부는 1977년부터 집권하면서 농촌에서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시작한다. 수많은 피난민의 유입에 의해 부족한 식량과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공산당 정부는 농촌개발계획을 통하여 토지와 농촌지역의 다른 생산 자산을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대농 및 중농에서 소작 및 무토지 농민들에게 평등 배분하였다. 공산당 정부는 이를 위해 뻬짜야뜨 통치법(Panchayat Raj Act)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공산당의 정책으로 농촌지역의 소득 및 지역 제조업의 성과가 개선되었다. 서벵갈의 토지는 인도 전체 농지 면적의 4% 수준이었으나, 토지 개혁을 통하여 총 농지의 60% 정도가 소작 및 주변부(marginal) 농민이 소유하게 되어 인도 평균 28.8%보다 훨씬 많은 영세 농민 및 소작인들에게 분할되어 토지의 비집중화를 달성한다. 즉 서벵갈 공산당 정부는 토지 개혁을 통하여 영세 농민들에게 자활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농촌지역에 소득 증대는 물론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에 농촌과 가장 연계가 강한 섬유산업은 물론

소규모산업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1976~77년 10만 개도 안 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40만 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했다(Frontline 2002. 7. 6). 하지만 이렇게 비조직화된 부문이 활성화되었음에도 조직화된 부문의 대규모 사업체들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서벵갈 공산당 정부가 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 발전, 인프라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벵갈 공산당 정부는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공산당 정부와 중앙정부와 정책 공조가 쉽지 않았다. 또한 공산당 정부가 사회 인프라 같은 거대 산업, 특히 민간 자본에 의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회 인프라 개발은 무시되고, 점진적으로 대규모 사업체들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숙련노동자들은 서벵갈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Dutachoudhuri 1995). 이에 반해 수많은 비조직화된 소규모 사업체들은 더욱 증가하고,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의 증가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1984~2001년까지 인도 전역의 산업 자본 투자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에 반해 서벵갈에 투자된 산업 자본 투자는 4배 증가에 그쳤다.

1980년대 말에는 황마, 섬유, 엔지니어링과 같은 서벵갈의 전통 산업들이 크게 축소되면서 상당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조직화 부문도 역시 침체되어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공산당 집권 후 점진적으로 노동 파업은 감소하였으나, 수많은 사업장 폐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당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장 폐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실업, 특히 도시 실업이 증가하면서, 도시 유권자들이 공산당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된다. 특히 젊은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공산당에 대한 믿음이 위축되면서 공산당에 대한 도시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다(Chakraborty 2008). 이에 공산당 정부는 기

존의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기, 즉 1990년대 초반에는 인도경제의 위기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인허가 제도 폐지, 개방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서벵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운임 균등화 정책(Freight Equalization)과 같은 정책들이 폐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산당 정권도 도시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산업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1994년 서벵갈 주정부는 주요 산업발전, 사양화 사업 부활, 고용 기회 창출, 노동자 이익 보호 등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산업화 정책을 추진한다.

1994-95년 서벵갈 산업정책은 △ 외국인 기술 및 투자 유인 △ 경제사회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의 성장 확대 △ 정부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resources)의 개발과 지원 △ 인프라 개선 △ 도로, 통신, 개발기구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서벵갈 산업개발공사(WB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가 설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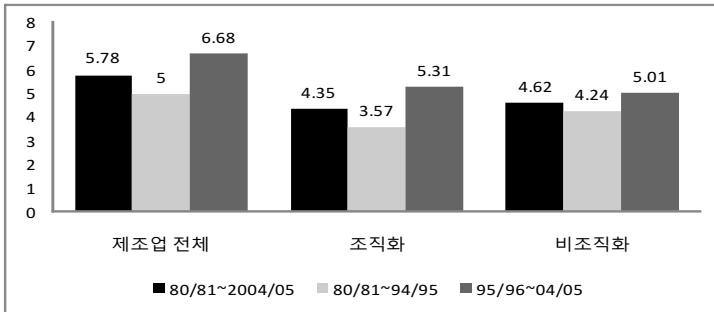
1999년 서벵갈 주정부는 인프라, 석유 화학, 보조 산업, 농업 기반 산업, 투자 유인 및 활성화를 위한 절차의 단순화, 규제 완화 및 축소, 비리 근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 서벵갈 주정부는 태국, 동남아,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에 서벵갈 투자를 유도하는 등 서벵갈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도의 관문’으로 발전시킬 것을 공고히 한다. 이를 위해 서벵갈 주정부는 고무산업 단지, 가죽산업 단지, 섬유산업 단지 등을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서벵갈은 1994년 이후로 친산업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공산당 정부의 친산업화 정책의 효과성에 있다. 제조업은 친산업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5%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특히 조직화보다는 비조직화된 부문의 성장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그림 3-16. 서벵갈의 조직화 및 비조직화 제조업의 성장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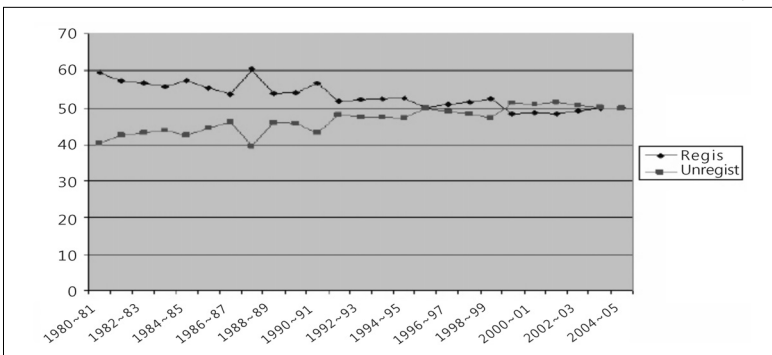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2009/10), Economic Review 2009/10.

친산업화 정책이 추진된 1995년 이후 조직화된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성장이 제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우선 조직화된 부문과 비조직화 부문의 변화를 보면, 오히려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조직화된 부문은 축소되고, 비조직화 부문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즉 비조직화 부문이 제조업 및 산출량에서 공헌도가 조직화된 부문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그림 3-17. 서벵갈의 조직화 및 비조직화 제조업의 총생산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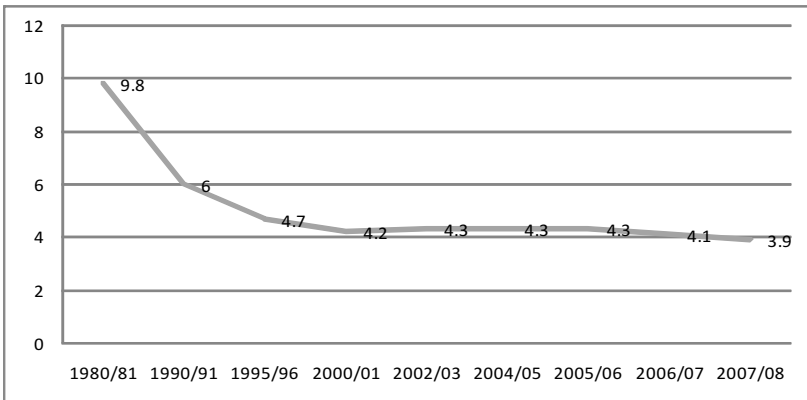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2009/10), Economic Review 2009/10.

더욱이 전체적으로 조직화된 부문의 축소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서벵갈 주정부의 친산업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995년 이후 서벵갈의 조직화된 산업체 비중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벵갈에서 제조업 성장은 1994년 친산업화 정책의 수행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비조직화된 부문의 역할이 큰 것에 비해 조직화된 부문의 역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1991년 이후 중앙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여타 다른 주들이 친산업화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한 것에 반해, 서벵갈은 여전히 비조직화된 부문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서벵갈의 친산업화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두게 되고, 이에 서벵갈은 여전히 낙후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그림 3-18. 서벵갈의 조직화된 제조업체의 인도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 변화 추이 ■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그렇다면, 왜 서벵갈은 1994년 이후로 친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인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짜끄라보르띠와 보스(Chakraborty & Bose

2010)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비록 서벵갈 주정부가 1994년 이후 친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인프라 개선 및 개발, 토지수용 및 확보, 노동문제 등에 대한 주정부의 확고한 정책시행에 대한 의지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인프라에서 서벵갈은 전력이 남는 주이지만, 전력의 질을 개선하고, 공급용량 및 송·배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콜카타 항 및 할디아 항 역시 확대 건설되어야 하지만 크게 변하지 않아 외국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서벵갈이 친산업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서류와 만성화된 관료주의 등으로 사업체 등록을 주저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익 집단의 확대가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사업을 하려면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협력을 하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 정당, 야당 등 다양한 이익 집단들과 사업에 대한 협상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이익 집단이 도처에 상주하고 있어, 행정 업무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비즈니스 추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서벵갈에서 집권당인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은 모든 지역의 기관에 침투되어 관리하고 있을 정도이다. 만약에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이 없는 지역에서는 다른 정당이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주정부 자체도 산업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서벵갈에서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체시키고 있다. 서벵갈에서는 현재 전력 시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 낮은 단위의 전력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력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은 정당간의 의견 충돌은 물론 각종 이해 집단의 간섭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서벵갈의 라자르하트(Rajarhat)에 전력 발전을 위한 4개의 타워를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간의 경쟁과 의견 충돌로 지난 2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컨대 서벵갈에서는 독립 이후 수많은 피난민의 유입 등으로 토지개혁 및 산업정책이 추진되었다.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의 중시로 사회 인프라 개선사업과 산업성장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서벵갈 경제는 더욱 악화되어 1994년 이후 친산업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친산업화 정책도 주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가 미약하고, 정당 및 다양한 이익집단의 창궐로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으로 서벵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여건이 앞으로도 쉽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서벵갈의 가장 심각한 경제적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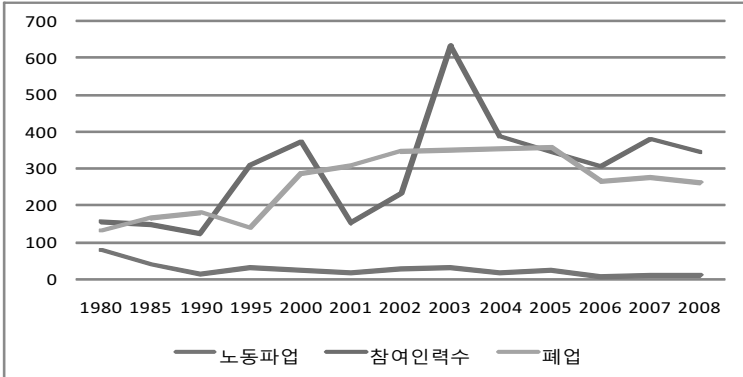
2) 전투적 노동조합 및 사업체 폐쇄

서벵갈의 산업화가 늦어지고, 경제성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로 전투적 노동조합과 사업체의 폐쇄가 지적되고 있다. 서벵갈은 1960년대까지는 상당한 수준에서 노동 파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동 파업은 생산 활동의 중단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서벵갈은 생산 활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KPMG 2007).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 투쟁의 수는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대신에 폐업이 더욱 증가하였다. 하지만 노동 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파업 수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점진적으로 취업 가능한 사업체 수가 축소되면서 취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노동자에서 기업가로 전환되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벵갈의 전통적인 산업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고, 특히 대규모 사업체들의 경영 손실이 확대되면서 사업장

폐쇄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서벵갈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 그림 3-19. 서벵갈의 노동 파업 및 참여 인력 수, 폐업 변화 추이 ■



자료: Government of West Bengal, Economic Review, 2009/10.

3) 토지 개혁 및 토지 확보의 어려움

서벵갈에서는 공장이 들어설 토지 확보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서벵갈은 독립 이후 상당한 피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식량난 및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 식량난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서벵갈 주정부는 토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기존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쪼개어 분할하여 나누어주는 개혁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면적의 토지가 불하되었다. 이렇게 불하된 토지 덕분에 농업 생산성이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권력 및 이득은 크게 분산되었다. 실제로 1980~81년에서 1990~91년 기간 동안에 농업생산은 인도 전체에서 3.15% 증가한 반면 서벵갈에서는 7.1% 증가하였다. 공산당 정부는 농업개발계획을 동등한 토지 분배에 기초를 두고 추진하였다. 서벵갈은 인도 총 농지의 4% 수준이지만, 토지개혁을 통한 서벵갈 총 토지의 60%가 소농민 및 한계농민들에게 분배

되었다. 이는 인도 전체에서 소농민 및 주변부 농민이 소유한 토지비중인 28.8%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공산당 정부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이로부터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Frontline 2002).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토지분배 개혁정책이 제조업 및 광업 등의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 요인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토지 개혁으로 토지의 지분이 상당히 쪼개져 있어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구입해야 한다. 더욱이 농민들이 갖고 있는 소규모 농지를 판매할 경우, 농민들이 생활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없는 것은 물론 대형 사업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토지를 판매할 의지가 매우 낮다. 특히 새로운 사업체가 입주해도 숙련 노동자들만 고용할 뿐,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들인 농민들을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토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Marjit 2010).

더욱이 토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개입 및 간섭도 산업용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서벵갈에서 공장이 입주하는 데,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물론 지역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이 토지 구입을 인정해야 공장 부지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지역 정당들이 자신의 정당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러한 환경으로 서벵갈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토지대장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토지 대장을 신뢰하여 입지 대상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공산당은 지난 30년 이상 정권을 잡았지만, 서벵갈에 토지 은행을 만들지 않았다. 따따의 나노 자동차 사업이 토지 구입 실패로 서벵갈에서 철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벵갈의 공산당 정부에서는 현재 정당 내 또는 정당 간에, 그리고 연합 정당 간에 다양한 의견 불일치로 토지개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만약 서벵갈이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서벵갈의 친산업화 정책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서벵갈 정부는 토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서벵갈 주정부가 산업정책을 내놓았을 때, 산업계는 산업화를 위하여 300에이커를 요구하였으나, 실제로 99에이커만 제공될 정도로 주정부의 토지정책 실행은 아직 의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벵갈 주정부가 이렇게 토지에 대하여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계가 토지 구입을 통해 투기를 하거나 농민들로부터 낮은 가격에 토지를 구입한 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토지개발정책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은 개발을 위해서 어떤 농민도 토지를 잃지 않을 것이며, 이미 많은 농민들의 토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농민 및 소지주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도 토지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Chakravarty 2010).

나. 오릿사

1) 농업의 부진

오릿사의 경제발전은 194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50년 독립 후에는 경제발전계획을 도입하면서 발전 속도를 높여왔다(Pandey 1998). 오릿사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인도 내의 여타 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여 빈곤에서 가장 먼저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오릿사 주는 농업부문에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물론 3차산업의 성장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릿사에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이 70%에 이른다. 하지만 농업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NS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1960~61년 73.8%, 1970~71년 77.4%, 1980~81년 74.7%, 1990~91년 73% 등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부문에서 고용 기회 부족은 물론 농업부문의 생산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1년 1인당 경작지 농지는 0.39ha였으나, 1999년 0.17ha로 축소되었다. 이는 식량 생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오릿사 정부는 다양한 농업정책을 수행하여 농업의 상업화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산업부문의 낮은 성장은 농업부문에 의존도를 더욱 높였다. 더욱이 농지를 갖고 있지 못한 농부들이나 소작농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생산한 농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은 농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형 농업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과학적 경작, 다품종 경작 등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오릿사 농업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Mahapatra 2010). 또한 기초분야에 집중된 성장, 식품 및 곡물 시장의 접근 및 가격의 불안정성, 농촌지역의 빈곤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기초 인프라의 부족도 농업부문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오릿사 주의 농업 부진은 산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릿사는 천연자원, 토지, 물, 산림이 풍부한 주다. 산림지역이 인도 전체 면적의 약 5%, 주 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림지역에는 다양한 부족민(tribe)이 살고 있다. 오릿사 인구의 23%가 부족민이며, 이러한 부족민들이 산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빈곤층이 감소하지 않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을 경작지로 전환시키면서 산림이 크게 훼손 및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릿사에서는 산림 지역 5,000km²가 부족민들에 의해 경작지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작지화는 정부 또는 산림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산림보호법을 여러 차례 제정 및 개정하면서 산림지역 보호에 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산림지역의 경작지화가 거주 및 식량 확보를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릿사 경제가 오랫동안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2) 대기업 중심 개발 지향의 산업정책과 그 한계

오릿사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주로 남아 있으면서도 산업화가 가장 뒤쳐진 주다. 오릿사는 산업과 광업의 주요 생산지이며, 인도에서 첫 번째 민간 철강 공장인 따파(TATA) 철강이 설립된 곳이다. 물론 공기업 석탄업체가 독립 전부터 진출해 있었으나 특히 독립 후 많은 공공부문이 진출하여 광업과 산업의 지도를 확대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Rourkela Steel, Hindustan Aeronautics Ltd(HAL), National Aluminum Company(NAICO) 등 많은 대규모 산업체들이 오릿사에 입주하여 산업과 광업부문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1991년 경제 개혁의 시기에 금속 생산은 3,720만 톤에 이르고, 2001년에는 생산량이 100% 증가하였다. 2002~03년 경제조사(Economic Survey)에 따르면, 2001~02년 광업 생산량이 7,49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오릿사의 산업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여기는 오릿사 주민들은 많지 않다. 오릿사의 산업화가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빈곤 감축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광업에 의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시기에 오히려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제조업 및 엔지니어링 산업부문도 침체되었으며, 이는 이를 보조하는 산업까지 침체를 하게 이끌었다. 오릿사의 NSDP(National State Domestic Product)에서 제조업에 기여하는 수준이 1993~04년 7.37%에서 1999~2000년 4.06%, 2000~01년 2.51%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는 오릿사의 제조업 활동이 지난 30여 년간 다변화되지 못하였으며, 오릿사 주의 산업구조가 자원의 의존적 산업, 특히 금속기반산업에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집중된 결과 때문이다. 오릿사의 4개의 주요 산업인 전력, 기초금속 및 합금, 비금속 자원, 식품

이 오릿사 산업 전체 고용의 75%를 차지하고, 순부가가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4)

오릿사 산업의 주요 성장은 금속 및 철강과 같은 천연자원의 활용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확장은 또한 상당한 수준의 삼림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광업 및 산업 부문이 산림지역의 35%를 탈산림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Vasundhara 2005). 특히 이러한 탈산림화는 부족 및 농촌의 토지를 잠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때문에 부족민 및 농민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것이다. 오릿사의 주요 대규모 산업 및 천연자원의 대부분은 부족민 및 산림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북부 및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의 개간 및 훼손이 거주하고 있는 부족민 및 농민들의 생활 터전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남쪽 지역의 85.5%, 북쪽 지역의 79%의 부족민들이 최빈층으로 이루어져 있다(Panda 2000). 문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산업화가 2000년 이전에 새로운 일자리 및 산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농업과 임업에 임하는 인구가 많고,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도 1998~99년에 10% 수준에도 못 미쳤다(Economy Survey 2000/01). 더욱이 농업 및 천연자원부문의 급속한 침체는 오릿사의 고용기반을 더 줄어들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주정부의 대규모 산업 및 광업에 대한 산업정책은 오릿사 주로부터 더 많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하였으나 오릿사 주의 경제성장이나 빈곤 해결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거대사업의 추진은 산림자원, 산림 등에 의존하고 있는 부족민들이 산림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들었다. 오릿사 정부는 이러한 부족민들을 위한 재할 정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였다. 1996년까지 오릿사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5만 가주, 33,000ha의 토지를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위한 이주민의 재

4) Annual Survey of Industries(1997/98).

활사업은 부재했고, 이로 인해 부족민들은 일종의 토지가 없는 이재민으로 전락하고 흩어지게 되었다. 마하라슈뜨라, 구자라뜨, 라자스탄과 같은 주는 거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역민의 이주에 대한 분명한 정책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오릿사주는 가난한 농민들의 이주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책의 부재로 사업별로 각각 다른 이주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이주에 대한 권한이나 재할 정책에 대한 요구는 거의 무시되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주정부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및 거대사업 추진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더군다나 부족민들이 이주하면서 부족민들의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범죄가 증가하는 등 부족민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주정부의 개발사업에 대한 반항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Vidyarthi 1970). 부족민들은 지정 부족(ST: Scheduled Tribe)으로 분류되는 존재로 힌두 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주정부에서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 한 그들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고 그것은 고스란히 경제 부담으로 남게 된다.

광산업의 경우 주의 광물을 개발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오릿사 주에 있는 토지, 수자원, 산림 등을 잘 활용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그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주민에 대한 배려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릿사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이로부터 주정부의 정책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발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운동 중에서 낙살운동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인도의 거대산업 진출이 산림 훼손은 물론 지역민에 대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포스코, 미탈, 릴라이언스, 따따 등의 거대사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산업정책은 물론 이주 및 재할정책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 진출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거대산업의 오릿사 진출 시 부지 및 토지매입, 환경 문제 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집권당이 거대산업의 입주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 오릿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오고 있다. 특히 야당들은 오릿사에서 가장 민감한 토지획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더욱이 토지가 매우 작은 단위로 분할되어 있고 그 소유주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거나, 소유주가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오릿사에서 산업용 토지를 구입할 때, 보상이 사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기업들이 오릿사에 입주하는 데 부딪히는 애로요인이다.

요컨대, 오릿사는 자원 중심의 거대사업을 추진하는 산업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부지 구매와 보상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보상 및 재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주는 정책이 없었고, 이는 거대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거대사업 추진이 고용을 증가시키지도 못하였다는 사실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거대산업의 추진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불신은 거대사업 추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한 오릿사에서 산업개발 및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

동부지역 투자사례 분석

1. 내국 자본의 사례: 따따 나노의 싱구르 철수

가. 싱구르 사태의 개요

1) 사태의 개요

2006년 따따 자동차는 10만 루피 자동차(나노)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서벵갈의 싱구르를 생산 공장 입지로 선정하였다.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 주도 좌파전선 연합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서벵갈 정부는 따따 자동차에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1천 에이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하였다. 농지 수용에 대해 해당 농민들이 반발하였고, 반대운동이 서벵갈의 야당인 트리나물 회의당의 마마따 바네르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진행되었다. 폭력으로 얼룩진 반대 운동과 진압이 거듭된 끝에 2008년 10월 따따 자동차는 마침내 싱구르에서 공장을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나노 자동차는 구자라트 주의 사난드에서 생산되어 2009년 3월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2) 따따 나노의 싱구르 생산 발표에서 싱구르 철수까지⁵⁾

△ 2003년

- 제항기르(Jehangir) 1이라는 비밀명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됨. J-1 또는 따따 루피(Tata Rupee)라고도 불림.

△ 2004~05년

- 엔진 테스트가 시작됨. 20마력짜리 선박 엔진이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됨. 따따 그룹 회장 라판 따따는 나노를 5만 루피(약 1천 달러) 범위 내에서 제조하라고 지시함.

△ 2006년

- 1월: 27마력짜리 554CC 엔진과 586CC 모델이 개발됨.
- 5월 18일: 라판 따따는 서벵갈의 콜카타에서 40km 떨어진 싱구르에서 소형차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같은 날 붓다데브 밧따짜르지(Buddhadeb Bhattacharjee)가 주 총리로서 그 사실을 확인함.
- 5월 25일: 따따 자동차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수용에 반발하여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임.
- 10월 9일: 야당인 트리나물 회의당이 12시간 동안 서벵갈 전역의 동맹파업을 호소함.
- 12월 2일: 싱구르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 고무 총알에 의해 5명이 부상을 입음.
- 12월 3일: 트리나물 회의당의 마마따 바네르지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감. 단식은 25일 만에 중단됨.
- 12월 4일: 콜카타의 따따 자동차 전시장이 공격을 받음. 주 총리가 싱구르 사태에 대한 회담을 제의했으나 마마따 바네르지가 거부함.

5) Businessworld(2008); Hubpages(2010) 참고하여 작성.

- 12월 18일: 여학생 따빠시 말릭(Tapasi Malik)이 싱구르 공장의 담장 안에서 강간 및 살해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하자 트리니물 회의당이 48시간 동맹 파업을 선언함.
- 12월 28일: 마마따 바네르지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중단함.

△ 2007년

- 1월 14일: 토지를 위한 의식이 따따 자동차 프로젝트 부지에서 거행됨.
- 2월 5일: 경찰과 군중이 싱구르에서 충돌함.
- 3월 9일: 주정부는 따따 자동차와 나노 공장을 위한 90년간의 부지대여 협정에 서명함.
- 3월 11일: 농부 하라단 바그(Haradhan Bag)가 싱구르에서 자살함.
- 3월 16일: 싱구르에서 군중들이 따따 자동차 공장의 담장을 공격함.
- 3월 18일: 담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담장이 훼손됨.
- 3월 25일: 공장에서 경비원들과 시위자들이 충돌하여 경비원 5명이 부상을 입음.
- 5월 24일: 주정부와 트리니물 회의당 간의 평화 회담이 결렬됨.
- 5월 25일: 싱구르의 농민인 뿌라산따 다스(Prasanta Das)가 자살함.
- 6월 4일: 서벵갈의 전 총리인 지요띠 바수(Jyoti Basu)가 싱구르 프로젝트에는 600에이커면 충분하다는 마마따 바네르지의 주장에 동의함.
- 9월 18일: 따따는 훈련을 마친 17명의 싱구르 청년들을 최초의 직원 그룹으로 선정함.
- 11월 12일: 시위가 격화되자 서벵갈 중앙 병력이 싱구르에 배치됨.

△ 2008년

- 1월 10일: 따따 그룹은 델리 자동차 전시회에서 소형차를 선보였으며, 나노가 10만 루피의 가격으로 팔릴 것이라고 발표함. 싱구르의 반대 세력들은 나노 모형을 불태움.

- 1월 16일: 따따는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 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
- 1월 18일: 콜카타 고등법원은 싱구르의 토지 수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 2월 15일: 대법원은 싱구르에서의 나노 공개금지처분 요청을 기각함.
- 5월 21일: 쓰리나물 회의당은 싱구르 기초의회에서 다수당이 됨.
- 6월 27일: 싱구르의 시위자들이 공장의 정문을 파괴함.
- 8월 7일: 마따 바네르지가 따따와 회담을 제의함.
- 8월 18일: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이 마따 바네르지와 협상에 나섬.
- 8월 19일: 마따는 400에이커를 농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요구함.
- 8월 20일: 주정부와 쓰리나물 회의당 간의 회담이 결렬됨.
- 8월 22일: 라판 따따는 싱구르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될 경우 나노 프로젝트 서벵갈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함.
- 8월 23일: 인도 기업가들이 모여 시위의 지속은 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8월 24일: 쓰리나물 회의당이 토지의 상황을 요구하며 싱구르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함.
- 8월 26일: 나노 공장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함.
- 8월 27일: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 무께시 암바니(Mukesh Ambani)가 따따의 나노 프로젝트 지지를 밝힘.
- 8월 31일: 쓰리나물 회의당 대표가 주지사 고펠끄리슈나 간디(Gopalkrishna Gandhi)를 만나 문제 해결의 중재자로 나서줄 것을 제안함.
- 9월 2일: 크리켓 영웅 수라브 강굴리(Surav Ganguly)가 따따 자동차 지지를 선언함.
- 9월 3일: 따따가 시위대의 습격과 위협으로 인해 싱구르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공장 이전 의사를 다시 밝힘.
- 9월 3일: 주지사가 주정부와 쓰리나물 회의당을 판자로 초청하여 교

착상태를 끝낼 것을 촉구함.

- 9월 4일: 라딤 따따가 나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쓸 것이라고 밝힘.
- 9월 7일: 주 총리, 마따 바네르지, 주지사가 주지사 공관에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에 조인함.
- 9월 8일: 프리나물 회의당과 서벵갈 산업개발공사 간의 회담 결과로 특별토지조사위원회가 구성됨.
- 9월 12일: 싱구르에서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자 붓다테브 밧따짜르지의 요청으로 CPI(M)와 마따가 회동함.
- 9월 13일: 주정부가 싱구르의 농민들을 위한 생계 프로그램을 발표함.
- 9월 15일: 좌파전선이 교착 상태의 종식을 요구하며 싱구르에서 집회를 가짐.
- 9월 16일: 마따 바네르지가 협약의 시행을 요구하며 반대집회를 개최함.
- 9월 24일: 싱구르 공장의 경비원에 대한 공격이 발생함.
- 9월 24일: 정부는 싱구르 위기의 해결을 촉구함.
- 9월 30일: 주 총리가 전 관련 당사자의 회동을 요청했으나 프리나물 회의당과 그 동맹세력이 거부함.
- 10월 3일: 라딤 따따가 나노 공장의 철수를 공식 발표함.
- 10월 8일: 나노 프로젝트가 구자라뜨의 사난드(Sanand)로 이전됨.

△ 2009년

- 3월 23일: 나노의 세 모델이 출시됨. 기본 모델은 공장도 가격으로 10만 루피로 책정됨. 나노 자동차는 2011년 1월에 유럽에서 출시할 계획으로 있음.

나. 서벵갈 정부와 따따 자동차의 협약

싱구르는 서벵갈 주의 후글리 군(Hoogly District)에 있는 작은 도읍으로, 콜카타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그림 4-1, 그림 4-2 참고). 철도와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교통여건이 매우 좋은 편이다. 하우라따라케스와르선(Howrah-Tarakeswar line)의 하우라 역에서 34km 거리에 있으며, 하우라-바르다만 선과 하우라-따라케스와르 선의 교차점인 까마르कुन्द(Kamarkundu)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림 4-1. 서벵갈 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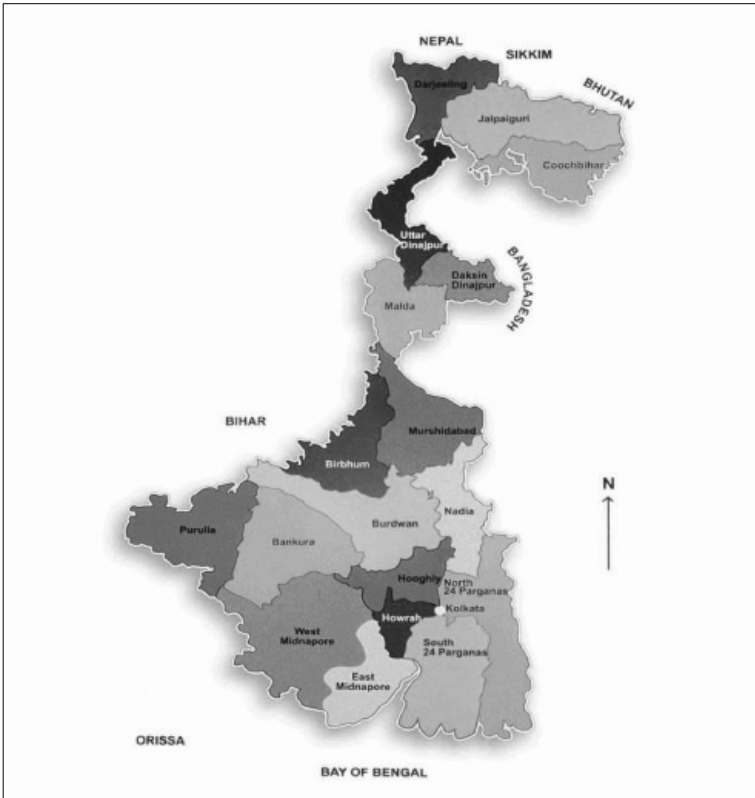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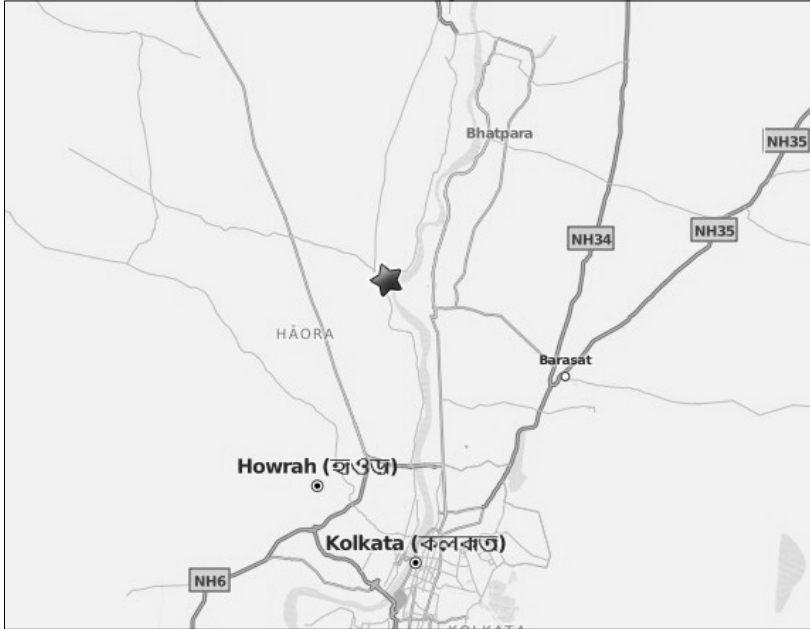


그림 4-2. 싱구르의 위치



2001년 센서스에 따르면, 싱구르의 총인구는 약 2만 명이고, 그중 남자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싱구르 인구의 교육 수준은 인도 평균에 비해 높다. 인도 인구 전체의 평균적인 문자 해독률이 64.8%인 데 비해 싱구르는 76%로 매우 높다. 특히 남자는 81%에 이르고 있다. 따따 자동차의 라탄 따따 회장이 싱구르를 나노 자동차의 생산기지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동차 가격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송비를 포함한 제반 간접비용을 최대한으로 낮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따따 자동차가 서벵갈의 싱구르를 선택한 데는 단순한 입지적 이점 이상의 것이 있었다. 따따는 서벵갈을 나노 자동차의 입지로 선택하고 서벵갈 정부로부터 포괄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를 약속 받았다.

서벵갈 정부는 나노 자동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자동차 프로젝트를 서벵갈

에 입지시키기 위해 따따 자동차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따따 자동차의 입장은 나노 공장을 웃따르칸드나 히마짤 뿌라테시에 입지시킬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에 상당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서벵갈에 공장을 설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따따 자동차와 서벵갈 정부 및 서벵갈 산업개발공사(WBIDC: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간에 맺어진 협약에 따르면, 따따 자동차는 싱구르에 약 150억 루피를 투자하며, 부품업체들은 별도로 50억 루피를 투자한다. 나노 공장은 2교대 기준으로 연산 25만 대(3교대 기준 35만 대)의 생산능력을 갖춘다. 이에 대해 서벵갈 정부는 따따 자동차의 싱구르 공장 설립을 조건으로 따따 자동차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Sify finance 2008).

첫째, 정부는 20억 루피의 자금을 연리 1%, 대출의 지급일 이후 21년째부터 5년간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부한다. 이 자금은 이 협약 조인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된다.⁶⁾

둘째, 정부가 나노 프로젝트에 공급하는 전기는 kwh당 3루피로 한다. 5년을 단위로 하여 단위당 25페사 이상 요금인 인상되면 정부는 추가 보상을 제공하여 이 인상분을 상쇄시킨다.

셋째, WBIDC는 645.67에이커의 토지를 따따 자동차에 90년간 임대한다. 임대료는 첫 5년간 연 5천만 루피이며, 30년이 될 때까지 매 5년마다 25%씩 인상된다. 30년 이후에는 임대료가 연간 5천만 루피로 고정되며, 60년이 될 때까지 매 10년마다 30%씩 인상된다. 이후에 임대료는 연간 2억 루피로 고정되며, 이는 90년이 될 때까지 유지된다. 90년의 임대 기간 이후에는 양쪽의 합의에 의해 임대 조건이 결정된다.

넷째, 협정에 의하면, WBIDC는 따따 자동차에 산업 촉진 지원금을 지원한다. 그 조건은 나노 자동차의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매년 3월 31일에

6) 따따는 싱구르의 토지에 대해 2007년 3월 9일자로 정부와 협정을 맺었다.

끝나는 이전 회계연도에 서벵갈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총 부가가치세와 중앙 판매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리 0.1%로 대부한다는 것이다. 이 지원은 순 현재가치 기준으로 지원금이 윗따르칸드의 지원금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되며, 이후 중단된다. 이자부 대부는 나노 공장의 판매가 시작된 후 31년째부터 연 1회 할부로 상환된다. 즉 첫 해의 대부금이 31년째에 상환되는 방식이다. WBIDC는 이 대부를 전년도 말의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WBIDC가 은행이자율의 1.5배로 따따 자동차의 재정적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다섯째, 부품 업체용 토지의 경우 약 290에이커의 토지가 WBIDC의 실제 취득비용과 부수비용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부품 업체들에 임대된다. 부품업체들은 첫 45년간 에이커당 8천 루피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그 다음 45년간은 1만 6천 루피를 지불해야 한다.

다. 토지 수용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반발

따따 자동차가 선정한 지역은 싱구르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며, 싱구르 자체는 서벵갈 주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중 하나다. 그래서 싱구르의 거의 전 인구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 1만 5천 명의 인구가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다. 따따의 나노 프로젝트로 인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접적 일자리의 숫자가 약 1천 명에 불과하고, 그것마저도 외부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싱구르의 농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서벵갈 주정부는 나노 공장 설립에 필요한 997에이커(약 415만m²)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식민기에 제정된 1894년의 토지수용법에 의거한 강제적인 수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정부는 이 법의 관련 조항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률에 의하면 정부의 사유지 수용은 민간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한데, 따따 자동차를 위한 강제 수용은 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지만 일부 농민들이 그것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최소한 400에이커(약 167만m)의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반대 운동은 쓰리나물 회의당의 마마따 바네르지가 주도하였다. 마마따 바네르지는 자신이 이 나노 자동차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에 불필요한 농지를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운동은 민권 및 인권 운동 단체, 법률 단체, 사회 운동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야 센 같은 이는 공장 설립에는 찬성하면서도 토지 강제수용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주정부와 따따 자동차는 예비 조사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반대자들은 주로 쓰리나물 회의당이 주도하는 싱구르농지보존위원회(Save Singur Farmland Committee)가 조직한 마을 주민들이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인도 형법 144조의 금지조항(7)을 1개월간 시행했다가 나중에 무기한으로 연장하였다. 나중에 콜카타 고등법원은 이 조항의 시행이 불법이라고 판결하였다.

소작농들은 일자리를 완전히 잃을 것을 염려했지만, 지역 주민 일부, 특히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과 관련된 사람들은 공장 설립을 환영하였다. 이들은 주로 대토지 소유자들이었고, 보상에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반면에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일부는 훈련 중에 수업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는 반대 시위 중에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7) Section 144. 'Joining unlawful assembly armed with deadly weapon.' Whoever, being armed with any deadly weapon, or with anything which, used as a weapon of offence, is likely to cause death, is a member of an unlawful assembly, shall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either description for a term which may extend to two years, or with fine, or with both.

2006년 12월 1일에 담장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마따따 바네르지는 벵갈 주의 총파업을 촉구하였고, 그 소속 정당인 트리나몰 회의당의 의원들은 의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12월 3일 마따따 바네르지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여 25일 만에 중단하였다. 이 시기에 반대 운동을 하던 한 여학생이 공장 안에서 성폭행 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바네르지가 주도하는 농민들의 반대 운동은 지속되었다. 경찰과 군중의 충돌, 군중들의 따따 자동차 공장 습격, 경비원들과 시위자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났다. 2007년 3월과 5월에는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 와중에도 따따 자동차의 나노 생산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었다. 2007년 3월에 따따 자동차와 주정부는 나노 공장을 위한 90년간의 부지 대여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9월에는 17명의 싱구르 청년들이 훈련 과정을 마치고 따따 나노 공장의 직원으로 임명되었다. 2008년 1월에는 따따 그룹이 텔리 자동차 전시회에서 나노 자동차를 선보였다. 법원도 싱구르의 토지 수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따따 자동차에 사태가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했다.

싱구르 사태는 2008년 5월 트리나몰 회의당이 싱구르 기초 의회에서 다수당이 됨으로써 전기를 맞았다. 트리나몰 회의당은 이 선거에서 기초의회인 그람 뽀짜야뜨의 16석 중 15석을 차지하였다. 트리나몰 회의당은 선거 직후 싱구르 기초의회가 따따 자동차에 행정적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싱구르의 시위자들이 따따 자동차 공장의 정문을 파괴하였다. 8월에는 시위가 한층 더 격렬해졌고, 8월 22일 따따 자동차의 회장 라판 따따는 싱구르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 회사가 손실을 입더라도 나노 프로젝트를 서벵갈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⁸⁾

이 사태가 서벵갈 주는 물론이고 인도 전국의 관심을 모으면서 내외의 사태

8) 따따 자동차가 싱구르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8월 23일 마하라슈트라와 오리스사 주가 따따 자동차의 나노 공장 유치의사를 표명하였다.

해결 입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서벵갈 주지사인 고팔끄리슈나 간디(Gopalkrishna Gandhi)가 중재에 나서 주 총리와 마마따 바네르지, 주지사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이 맺어졌다. 협정의 요지는 주정부가 관련 농민의 요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특별토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사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농민들의 토지를 환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 주정부는 나노 공장 인근에 쇼핑몰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이런 합의에 따라 이 사태는 종결에 이르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라판 따따는 자신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고, 사태는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마마따 바네르지는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다시 열기 시작했다. 나노 공장에 대한 공격도 되풀이되었다. 주 총리는 관련 당사자의 회동을 요청했으나 뜨리나물 회의당은 거부하였고, 결국 10월 3일에 라판 따따가 나노 공장의 철수를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라. 인도 정치의 역학 관계와 싱구르 사태

마마따 바네르지는 시종일관 농민들의 나노 공장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바네르지는 극우정당인 인도국민당의 오랜 동맹이며, 국민회의당-인도국민당 연합 정부에서 여러 차례 장관을 지냈다. 국민회의당-인도국민당 연합은 인도의 신자유주의 개혁 과제를 시행하는 데 적극적인 정치 연합이었지만, 바네르지는 서벵갈에서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싱구르 사태에 임하였다. 즉 바네르지는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⁹⁾이 주도하는 서벵갈 좌파전선 연합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에 맞서서 서벵갈 빈곤 농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따따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서벵갈 주정부의 비판자로 자임하였다. 바네르지는 자신이 싱구르 사태에서 담당할 역할을 놓고 따따가 신랄하게

9) CPI(M)은 2010년 현재, 서벵갈뿐만 아니라 케랄라, 뜨리뿌라 주에서도 정권을 잡고 있다.

비판하는 데 대해 따따의 철수는 따따와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이 뜨리나물 회의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바네르지가 혼자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네르지는 인도사회주의연합센터(SUCI: Socialist Unity Centre of India), 인도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자)[(CPI-ML: Communist Party of India(Marxist-Leninist)], 기타 낙실주의(모택동주의) 그룹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싱구르 저항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은 전체주의 사회주의자이지만, 바네르지는 그보다는 덜 나쁘다”는 식으로 농민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투쟁을 뜨리나물 회의당 활동의 일부로 끌어들이었다.

국민회의당은 인도 진보동맹연합(UPA: United Progressive Alliance) 정부에서 다수 정당으로서 애초에 바네르지가 싱구르 사태에 개입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이 같은 활동은 2007년에 국민회의당이 인도-미국 핵 조약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좌파전선이 통일진보연합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싱구르 사태로 따따 자동차가 서벵갈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발표한 직후, 국민회의당 지도부는 전략을 바꾸어 싱구르 사태를 둘러싼 뜨리나물 회의당과 좌파전선 연합 간의 갈등을 중재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인도의 유력 다국적기업인 따따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회의당 지도부는 2009년 5월에 있을 총선 이후 좌파전선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었다.¹⁰⁾ 결과적으로 국민회의당의 중재 노력은 너무 제한적인 데다가 시기적으로 늦어서 따따나 서벵갈 정부의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서벵갈의 공산당 정부는 1977년 처음 정권을 잡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집권하다 보니 집권 연장을 위해

10) 국민회의당이 주도하는 통일진보연합(UPA)은 2009년 5월 총선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262석을 얻어 재집권하게 되었다. 반면 인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은 의석이 59개에서 22개로 줄어드는 참패를 하였다. 심지어 집권 중인 서벵갈 주에서도 의석이 26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었다.

끊임없이 전략과 이념을 진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당 정부는 1977년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소외된 자들의 정부로, 빈민들의 메시아로 인식되었다. 공산당은 소득과 자산을 재분배하고 공유 토지를 무토지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개혁정책을 펼쳤다.

그러다 공산당 정부는 1990년대 초 인도의 경제개혁을 계기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였다. 공산당 정부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서서 사회주의적 정치 이념을 반영하고 있던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을 서벵갈주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싱구르에 따라 자동차의 나노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러나 공산당을 필두로 한 좌파 전선 연합이 나노 공장의 유치 과정에서 보인 정책적 대응은 장기 집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좌파전선은 서벵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집권해왔기 때문에, 오토릭쇼 조합에서부터 서벵갈의 교수 연합까지 모든 공적 조직을 당의 간부들이 장악하고 있다. 게다가 좌파전선의 의회와 지역조직 장악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주도하여 집권당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거의 2년간 격렬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것이었음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서벵갈 주정부가 정치적 강압에 의한 토지 수용, 경찰의 발포와 폭력이라는 투명하지 못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한 것은 장기 집권에 도취되었기 때문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마마따 바네르지의 정치적 역량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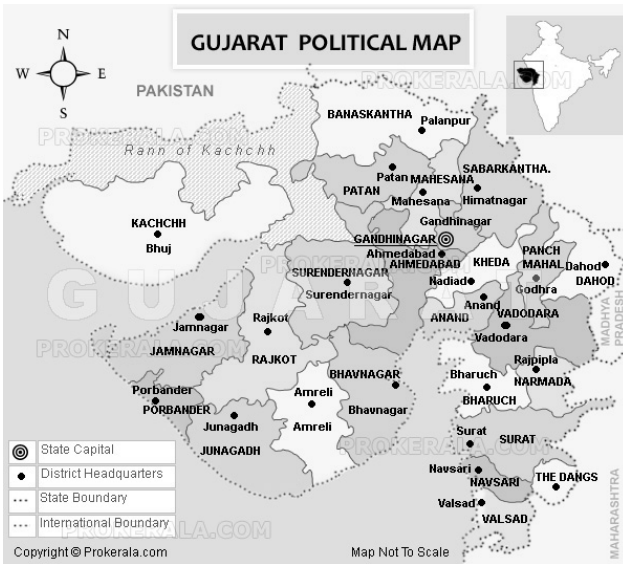
마. 나노 자동차의 사난드 이주

2010년 6월 3일, 따따 자동차는 나노 자동차의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는 서벵갈 주 싱구르의 나노 자동차 공장을 구자라뜨의 사난드(Sanand)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는 지 1년 8개월 만이었다.

2008년 10월 7일 따따 그룹과 구자라뜨 주정부는 나노를 구자라뜨 아메다바드 군의 사난드¹¹⁾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그림 4-3 참고). 이는 라판 따따 회장이 싱구르에서 나노 프로젝트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10월 3일부터 나흘 뒤의 일이었다. 이로써 2년 전 서벵갈의 싱구르에서 시작된 나노 프로젝트가 우여곡절 끝에 입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싱구르에서 사난드로의 이전에 대해 따따 그룹의 라판 따따 회장은 “나쁜 M에서 좋은 M으로”의 이전이라고 표현하였다. 전자는 서벵갈 쓰리나물 회의당의 마따따 바네르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구자라뜨의 총리인 모디(Modhi)를 지칭하는 것이다(Exam in India 2008).

그림 4-3. 구자라뜨 주 지도



11) 2001년 센서스에 따르면 사난드의 인구는 3만 2,348명이며, 그중 남자가 53%이다. 사난드 인구의 문자해독률은 72%로 인도 전체 평균인 64.8%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따는 이 협정에 따라 구자라뜨 주 사난드의 짜로디(Chharodi)와 짜랄(Charal) 마을에서 1,100에이커(약 458만m)를 배정받았다. 이곳은 아메다바드에서 35km 떨어져 있으며, 델리-뭄바이 간 고속도로(NH-8)에 인접해 있고, 항구로 예정된 돌레라(Dholera)와도 가까운,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이다(그림 4-4 참고). 이 땅은 구자라뜨농업대학이 소유한 땅의 일부로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소를 번식시키는 데 사용되던 2,200에이커 중 일부였다. 구자라뜨 주정부는 이 땅을 현 시장 가격(에이커당 25만 루피)으로 따따에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땅은 구자라뜨 주정부 소유이고 대학교가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싱구르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강제 수용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었다(Ground Report 2008).

■ 그림 4-4. 8번 고속국도(NH-8) 지도 ■



나노 프로젝트 철수를 발표한 다음날인 10월 4일 주 세입부(revenue department)는 짜로디와 바스나(Vasna) 마을에 있는 60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하여 나노 공장을 8번 고속국도(NH-8)에 연결하는 1km 도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정부는 이 도로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에게 에이커당 45만 루피(미화 10만 달러)를 지불하여 이들의 불만을 잠재웠다. 싱구르와는 대조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농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짜로디 마을의 촌장(sarpanch)인 나지르 칸(Nazir Khan)은, 자신들은 토지 수용에 불만이 없으며 나노 프로젝트가 구자라트 주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Ground Report 2008).

한편 따따의 나노 자동차는 2009년 3월에 출시 행사를 가졌으며, 그 해 7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가격은 11만 5천 루피로 책정되었다.

2. 외국자본의 사례: 부진한 포스코 제철소의 진출

가. 포스코 제철소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포스코는 인도의 오릿사 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철소 건설, 철광석과 철 수송을 위한 항만의 건설과 오릿사 주 내에 있는 철광산의 개발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의 규모는 인도에서도 외국인투자자 최대 규모이고,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로도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철소 부지 내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3년 이상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2) 포스코 프로젝트 추진 일지

△ 2005년

- 6월: 오릿사 주정부와 포스코 인디아 법인 간 MOU 체결.

△ 2005년

- 8~9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포스코저항연합회의(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가 결성됨.

△ 2006년

- 12월 18일: 임야권리법(Forest Rights Act)이 의회에서 통과됨.

△ 2007년

- 11월 29일: 경찰과 고용된 폭력배들이 한 검문소의 포스코 저항연합회의 단식농성장을 공격하여 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음.

△ 2008년

- 1월 1일: 임야권리법이 시행됨.

△ 2008년

- 3월 23일: 당끼아(Dhinkia) 촌락 의회(gram sabha)는 임야권리위원회를 선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임야권리법에 따른 권리 주장을 수집하는 과정을 시작함. 주정부는 이 지역에서 임야권리법을 시행하는 절차를 밟지 않음.
- 8월 8일: 대법원이 임야 사용을 위한 벌채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면 서도 환경부에 대해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함.

△ 2009년

- 8월 3일: 오랜 반대 운동에 대응하여 환경부는 '토지 전용'이 관련 지역 마을 회의의 사전 허가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회람 자료를 발표함. 아울러 토지 권리법의 시행 과정은 완전해야 하고 모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와 주민 재활 계획의 성격과 상세 정보가 통보된 뒤에 토지 전용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함. 주민의 50% 이상

이 동의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최종 벌채 허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함.

- 12월 29일: 환경부는 앞서의 회람 자료와 임야권리법을 무시하고 임야의 전용을 위한 최종 벌채권을 부여함.

△ 2010년

- 1월 8일: 환경부는 벌채는 ‘부족민의 동의’를 포함한 2009년 8월 3일 회람 자료의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함. 포스코는 이 지역에는 부족민이 없는 대신, 여타 임야 거주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모든 정부 관리들은 이것을 기정사실화함.
- 2월 마지막 주. 제철소 부지의 세 지역은 임야의 전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임야 보호의 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함.
- 2월: 포스코저항연합회의는 발리뚜타(Balitutha)의 모든 검문소에서 3개월간의 단식 농성을 시작함.
- 5월 15일: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하여 최소한 50명이 부상당함.
- 7월 24일: 환경부가 오릿사 주정부에 대해 토지 수용을 포함하여 포스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함.
- 7월 28일: 이 지역에 대한 임야권리법의 시행 상태, 주민 재할 및 정주 계획 시행을 점검하기 위한 미나굽따위원회(Mina Gupta Committee)가 구성됨. 나중에 그 권한이 포스코의 환경 및 해안 규제 지구 조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됨.

나. 포스코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사업 내용

1) 포스코 프로젝트의 성사 배경

오릿사는 빈곤선 이하 인구가 공식적으로 39.9%에 이르는 가난한 주다.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투자 의향 금액은 구자라뜨에 이어 인도에서 두 번

째에 이르는 투자 선호 지역이다. Assocham Investment Meter에 따르면, 오릿사에서 제안된 투자 금액은 2009년에 2조 루피 이상(약 미화 400억 달러)이다. 그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과 함께 석탄, 광석 등의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릿사에 가장 많은 투자 제안을 유인하는 부문이 바로 철강과 전력이다.

포스코도 오릿사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의 채광 및 제철 프로젝트는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전용 철광석 광산: 깨온자르 군(Keonjhar District)과 순다르가르 군(Sundargarh District)의 세 지역에 위치함
- ② 제철소: 연안지역인 자가뜨싱뿌르 군(Jagatsinghpur District)에 위치함
- ③ 민영 항구: 제철소 지역 인근의 자따다리(Jatadhari) 강 하구에 위치함 (그림 4-5 참고).

그림 4-5. 오릿사 주 지도



주: □ 부분이 제철소 프로젝트 지역.

포스코 제철 프로젝트는 인도의 오릿사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투자 사업 중 하나다. 오릿사 주는 사실 일종의 ‘철강 혁명’을 진행 중이다. 주정부는 지난 5년간 오릿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200억 톤의 철광석을 담보로 하여 국내외의 철강 기업들과 1조 6천억 루피에 상당하는 40개의 MOU를 체결하였다. 세계 4위 철강기업인 포스코도 그 기업들 중 하나로 약 6억 톤에 달하는 철광산을 확보하였다.

2000년대 들어 철강시장은 연간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적인 붐을 맞았다. 포스코가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철광석과 석탄) 획득 경쟁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을 타깃으로 하여 거대 일관 제철소를 설립하고 광물자원을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오릿사의 비주국민당 연립 정부도 경쟁 대상이 된 지역 중 하나다. 오릿사 주정부가 포스코에 내준 거래 조건은 이전에 인도 국내기업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일관 제철소 설립 초기부터 장애물을 만났다.

포스코 프로젝트는 2004년 8월에 시작되었다. 당시 포스코와 호주의 세계적인 광업 기업인 BHP 빌리턴(Billiton)은 공동으로 오릿사 주정부에 오릿사 주에 연산 1천만 톤 규모의 제철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제안하였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수용하여 2004년 12월에 MOU를 체결하였다.

첫 번째 장애물은 포스코가 철광석을 외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한 포스코 직원에 따르면 인도의 철광석에는 알루미늄 함량이 규정보다 2~3% 높아서 오스트레일리아 산 철광석과 혼합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4월 첫 주에 오릿사 주정부는 포스코 용의 철광석 광산을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포스코는 10억 톤의 철광석에 대해 50년간의 채광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정부의 원칙은 1,200만 톤 규모의 공장에 대해 4억 8천만 톤 이상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의 규정상 채광권

은 25년 이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결국 주정부는 포스코의 120억 달러 프로젝트에 거의 6억 톤의 고품질 철광석을 보유한 간다마르단(Gandhamardan) 광산과 말랑뚜리(Malangtuli) 광산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주정부 소유의 산업기반개발공사(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는 자가뜨싱뿌르 군 행정 당국에 대해 빠라디쁘 항 부근의 자따다리 강 하구에 포스코 공장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2005년 4월 둘째 주, 인도 중앙정부의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는 포스코의 제안을 기각하면서 상업부는 이런 형태의 철광석 수출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만약 포스코가 장기 계약을 원한다면 주정부 소유의 무역업체인 광물금속무역공사(MMTC: Minerals and Metals Trading Corporation) 같은 기업과 거래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05년 4월 14일로 예정되었던 계약 조인식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오릿사 주정부와 포스코 임직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포스코는 오릿사의 빠라디쁘를 제철소 예정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그러나 주정부와 MOU를 체결하는 데는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

2005년 5월 16일, 연방 정부의 재무부 장관인 찌담바람(P. Chidambaram)이 오릿사 주정부 관리와 포스코의 핵심 간부를 불러 프로젝트의 진전 속도가 늦은 데 대해 논의하였다. 이 당시 포스코는 초기 입장을 완화하여 철광석 수출 없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으며 철광석 필요량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MOU는 마침내 2005년 6월 22일에 체결되었다. 오릿사 주정부는 포스코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참고로, 브라질은 일찍이 포스코가 철광석을 시장 가격으로 채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코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중국도 외국인투자에 자국의 철광을 개방하기를 거부하면서 포스코의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2) MOU의 상세 내용

MOU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오릿사 주정부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 ① 제철소와 전용 항구 - 1,200만 톤 규모의 제철소와 항구를 자가뜨싱뿌르 군의 약 4,004에이커의 지역에 건설함
- ② 전용 채광 시설 - 철광석 및 석탄 채굴을 위한 전용 채광 시설을 오릿사 주정부와 인도정부가 할당한 지역에 설치함. 채굴 예정지인 칸다다르 산지(Khandadhar Hill Range)는 1만 3천 에이커에 걸쳐 있음. 6억 톤의 철광석은 톤당 24루피로 판매됨. 저급 철광석은 수출이 허용되며 수입 철광석으로 대체 가능함
- ③ 기반시설 - 도로, 철도, 항만 시설(광산 단지에서 빠라디쁘까지의 철도선 포함)
- ④ 시가지 - 2천 에이커에 걸쳐 건설됨
- ⑤ 용수 공급 시설
- ⑥ 특별경제구역 지위 부여 - 보조금과 조세 감면을 가능하게 함.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프로젝트의 규모와 주정부의 기업 지원 정도가 매우 크며, 채광, 토지 수용, 환경 입법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MOU는 철광석을 판매할 때 1톤당 2천 루피의 할인을 제공하는 조항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에 철광석을 교환할 권한도 주고 있다. 이는 포스코가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철광석을 수출하고 알루미늄 함량이 낮은 철광석을 수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주 내외의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MOU가 공개되자 인도 전국의 운동가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오릿사 주정부는 다국적 기업을 위해 퇴행적인 정책을 취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MOU 문서의 법적 유효성도 검토 대상이 되었다. 법률가인 우샤 라마나

탄(Usha Ramanathan)에 따르면, 주정부는 포스코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인가, 명령, 허가를 자동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다. 즉 그러한 허가 제공이 MOU에 의해 기정 사실화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행정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포스코가 MOU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행동할 경우, 주정부는 MOU에서 동의한 약속에 구속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주정부는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했는데 이는 부바네스와의 중산층과 지식인들이 이 사업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릿사와 같은 ‘후진’ 주를 ‘개발’한다는 명제에 강력히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3) 반대 운동의 시작과 사태의 경과

포스코는 프로젝트 성사를 위한 첫 단계로서 포스코-인도 법인을 설립하였다. 2006년 초 군(district) 정부는 공장과 항만 지구의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대 운동은 포스코저항연합회의를 구성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오릿사와 인도 전역의 토지 강제 수용 반대 운동이 포스코 프로젝트 반대 운동과 연대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포스코는 광범위한 미디어를 통한 광고에 집중하였다. 정기적으로 보도 자료가 발행되었는데, 대개 프로젝트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포스코는 프로젝트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단계별로 몇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 우선, 칸다다르 광산에 대한 채굴권은 많은 논란 끝에 일단 허가되었다. 그러나 현지 광산업자가 채굴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항구와 공장 부지에 대한 임야 벌채는 환경 운동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공장과 항만 부지의 주민들 대다수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2006년에 제정된 임야권리법에 따르면 공장과 광산

지역의 입자리에 대한 지역 사회의 개인 및 공동체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 수용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다.

포스코에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것은 연방의 상업부에 의해 특별경제구역 지위가 주어진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주정부와 환경산림부가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적시의 문제 해결을 명령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많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역할은 포스코의 이익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었다. 오릿사 주정부는 포스코저항연합회의의 저항 운동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주정부는 현지 주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여당 비주국민당이 지원하여 현지 폭력배를 동원하고, 프로젝트 지지를 선전하며, 시위자들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2007년 11월 시위가 발생하자 주정부는 그 지역에 114조의 시행을 선언하고 지역 주민의 집회·시위를 제한하였다. 2008년 4월에는 포스코저항연합회의와 오릿사의 사회 단체가 연대한 대규모 집회에서 144조의 적용을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와 포스코는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였다. 주정부는 2008년 10월 포스코저항연합회의의 지도자인 아바이 사후(Abhay Sahoo)와 핵심 활동가들을 체포하여 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다. 포스코 사업이 지역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

MOU에 의하면 프로젝트는 몇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이슈별, 지역별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관련 지역으로는 제철소와 항구가 건설될 자가뜨싱뿌르, 채광권이 부여될 순데르가르 군 북부지역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미래가 이 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도 전체로는 정책 및 지역 개발 수준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1) 제철소와 항만 부지

제철소 지역은 빠라디쁘 항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철소 예정 부지는 7개의 부락에 영향을 미친다. 주정부가 프로젝트를 위해 인가한 부지의 총면적은 4,004에이커인데, 이 중 3,566에이커가 정부 소유이고 나머지는 438에이커가 개인 소유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471가구가 이 토지에 포함된다(Asher 2009, p. 11).

2001년 센서스에 의하면 제철소 부지의 7개 부락에는 3,350가구, 2만 2천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한 반(反)포스코 운동 지도자에 따르면 이들 전 인구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 지역의 주요 소득원은 벼농사이고, 그 외에 주요 작물로 베텔¹²⁾이 있다. 예정 부지 내에 약 5천 개의 베텔 밭이 있고 1만 명이 그것을 경작하고 있다. 여름에는 캐슈 경작이 주요 소득 활동이다. 이 지역 인구의 약 절반은 새우 양식에 종사한다.

2005년 7월 각 마을은 그 지역의 총가구수를 보고하라는 공고를 받았는데, 마을 사무소는 그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빠라디쁘 항구 건설 당시에 노동자로 서벵갈의 미드나쁘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추가로 주민들이 이주해왔고, 정부는 그들에게 농장 부지를 얻을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공식 자격 없이 토지를 경작하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

공식 통계로는 포스코 부지 4,004에이커 중 438에이커만이 민간 소유이고 나머지는 정부 소유다. 정부 토지는 ‘임야’로 기록되어 있다. 정부 기록은 이 토지 대부분이 여러 세대 동안 베텔, 캐슈 및 기타 작물의 경작지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점유권을

12) 다년생 덩굴 식물의 일종으로 잎은 하트 모양인데, 커피, 차와 같은 약한 흥분제나 약재로 사용된다.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기호 식품인 빵(pan)을 만드는 원료이다.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정부는 베텔 경작지의 합법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 점이 포스코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강한 이유 중 하나이다. 주민들은 토지를 상실할 경우 자신들이 이주 계획에조차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06년에 인도정부가 임야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임야권리법을 제정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철소 부지에는 임야로 분류되어 임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임해지역이 있다. 이 지역에는 방목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있다.

한편 제철소가 건설되면 마하나디 강에서 수백만 리터의 물을 끌어 써야 하는데 이는 주변 지역의 상수도와 관개용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따다리에 건설될 항만도 환경 문제를 갖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항만 건설로 해안선이 훼손되면 꼬마바다거북(Olive Ridley turtle)의 산란 지역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거북들은 이미 불법 어획과 경작, 산업 오염 등으로 서식지를 위협받고 있는데, 항만 건설은 또 다른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만은 이 지역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자따다리 지역은 많은 종의 어류들이 산란을 하고 부화하는 장소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광산지역

순테르가르 군의 광산 예정지에는 더 큰 위협이 존재한다. 이 지역은 이미 대규모 채광 활동 때문에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칸다다르 산지는 오랫동안 외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의 주민들에게는 두 개의 거대한 폭포 때문에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은 임산물(목재 제외) 채집이다. 벼농사, 콩과 기장 재배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뽀두(podu)라는 전통적인 이

동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마을 주변의 특정 지역을 정해서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지난 수년 동안 이들 중 많은 농가들이 고정된 토지 구획에 대한 합법적 경작권을 부여받았지만, 칸다다르 산지의 중심부 부근 지역 마을들은 여전히 뽕두를 행하고 있다(Asher 2009, pp. 15-17).

칸다다르 산지는 철 함량 69%인 고품질의 철광석 매장지이다. 이 때문에 주정부가 포스코에 대해 6억 톤의 철광석을 채굴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철강 생산업자들이 이 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칸다다르의 반경 10km 이내에 50개 이상의 부락이 포스코가 6천ha의 지역에서 수행할 계획인 채광 활동으로 직간접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주민들의 반대 운동과 정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뉴스가 알려지자 곧바로 제철소와 항만 부지에서 반대 운동이 조직되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찬반 양론으로 혼재되어 있었으나, 머지않아 사회 전체가 반대 운동으로 결집되기 시작했다. MOU가 맺어진다는 소식은 2005년 4월 초에 알려졌고, MOU는 6월에 조인되었으며, 7월까지 포스코타격투쟁회의(PKSS: POSCO Kshatigrash Sangharsh Samiti)라는 반대 운동 조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구성원 중 많은 사람들이 MOU 조인 당사자인 오릿사 주의 여당인 비주국민당의 지지자여서 이 조직의 성격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에 포스코타격투쟁회의가 분열되어 일부는 프로젝트의 지지로 돌아섰고, 반대 운동은 다른 지도자의 주도하에 진행되게 되었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그룹은 크게 세 개로 구분된다(Asher 2009, p. 18).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인도공산당(CPI)의 아바이 사후가 주도하는 포스코저항연합회의이다.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은 국민회의당이 주도하는 오릿사구하기(Bhita Mati Bachao Andoland)인데, 이 단체는 활동이 다소 소극적이다. 세 번째 그룹인 새창조회의(Nav Nirman Samiti)는 마하뜨

마 간디의 원칙을 따르는 사르보다야(Sarvodaya) 운동의 청년 조직인 국가 봉사당(Rashtriya Seva Dal)이 주도하는 자원 봉사 조직이다.

이 그룹들은 반대 운동에서는 행동을 같이하지만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국가봉사당 운동가들은 포스코저항연합회의를 주도하는 인도공산당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반(反)포스코 투쟁을 주도하는 정당들의 참여를 불편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국가봉사당은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공산당의 입장이 약하다고 주장하는데, 인도공산당은 산업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다양한 기치 아래 모여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포스코의 지역 사무소 앞에서 파켓 시위
- ② 집회와 시위 개최
- ③ 이 지역에 들어오는 정부 및 기업 관계자의 구금
- ④ 모든 정부 및 포스코 직원의 지역 내 진입 저지 활동

이 중 프로젝트의 진행을 저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략은 지역 사회 주변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검문소는 여성들과 아동들이 24시간 지키는데, 지역의 관리들과 포스코의 직원들이 프로젝트 부지에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광산 부지의 경우는 2007년 8월에 인도 국민당(BJP)의 전 인도 부의장이며 오렛사 주의 총리인 주알 오람(Jual Oram)이 오렛사 주지사에게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포스코에 대한 채광권 부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오렛사 광업공사(OMC)가 운영하는 작은 광산도 물의 흐름을 크게 감소시켰다. 대규모로 광산을 굴착하고 철광석을 채취하면 칸다다르의 폭포가 말라버릴 것이다.’

이후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인도 국민당은 집권당인 비주

국민당과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인도공산당과 국민회의당도 채광권 부여에 반대하는 조직을 구성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2008년 초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조직인 KSSM(Khandadhar Suraksha Sangram Manch)이 조직되어 정치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반대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의회에서 기업이 창출하리라 예상되는 고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방 정부는 제철소와 광산이 직접고용 1만 3천 명, 간접고용 3만 5천 명을 창출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포스코는 이들 일자리의 98%를 인도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반대 운동기들은 이에 대해 이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약 25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전망

주정부와 연방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프로젝트가 진전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① 프로젝트의 규모 자체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각각 별개의 요소인 세 개의 개별 사업-전용 항만, 제철소, 광산-은 제각각 절차상의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고, 단계별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 ② 주 차원에서는 국민회의당이, 주와 연방 차원에서 좌파 정당들이 의회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③ 포스코가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있고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중산층과 상층계급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지만,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 ④ 2006년 깔링가나카르의 따따 철강 공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발포와 사망 사건, 서벵갈 주 싱구르에서의 강제적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주민에 대한 경찰의 무력 진압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 비주국 민당 정부는 포스코 프로젝트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3. 동부지역 투자 진출에 대한 시사점

2008년 9월 21일 마하라슈뜨라의 뻬(Pen)에서 무게시 암바니(Mukeshi Ambani)가 제안한 거대 특별경제구역, 투자 규모에서 싱구르의 거의 70배에 달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 투표가 열렸다.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는 22개 마을의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처럼 소위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 인도에서는 경제 개발 추진 세력과 그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충돌이 흔히 일어나고, 자주 반대 주민들이 개발 세력을 이겨낸다. 따따 그룹의 나노 자동차 프로젝트는 서벵갈에서 완전히 철수할 정도로 실패했는데, 따따가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서 토지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다른 주에도 많이 있다. 기령 오리사 주 자즈뿌르군의 깔링가나가르에서는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토지 수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주민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안드라 뽀라데시의 샴샤바드(Shamshabad)에서는 헬리콥터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서벵갈 주의 살보니(Salboni)에서는 JSW철강이 2007년에 제철소와 발전소를 건설하는 협약을 주정부와 맺었지만, 이 사업도 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싱구르의 나노 공장 문제와 오리사의 포스코 제철소 문제는 인도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러므로 인도 동부지역에 투자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조직은 현지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을 감안하여 주도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토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대형 투

자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전략 수립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입지 선정

대형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입지로 가장 적합한 곳은 국유 또는 공유지이다. 따따 나노의 경우 약 1천 에이커의 대상 토지 중 400에이커 정도가 사유지였고, 이 때문에 결국 구자라뜨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구자라뜨에서 확보한 토지는 대학 부지의 일부로서 규모가 충분했고 기존 거주자가 없어서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었다.

국유지나 공유지의 경우에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국·공유지임에도 삼림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삼림을 개간·경작하거나 삼림에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이 있는 경우,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과의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포스코의 경우 제철소 대상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존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보상 및 이주 문제가 사업의 진척을 막고 있다. 그리고 채광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과 자원의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지역이 가장 좋은 입지로 판명 나더라도 민간인 거주 지역이면 일단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최적 입지라 하더라도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입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차선의 입지가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입지는 여러 군데를 초기에 검토하여 그중 조건이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따 나노 자동차의 경우 최초로 서벵갈의 싱구르로 입지를 결정하기 전에 윗따르칸드와 히마찰 뽀라데시도 예정지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따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토지 보조금, 전기 사용료 인하, 저리 자금 대출, 조세 환급 등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나. 분쟁 대응

투자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에 민간인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민들과의 갈등은 심증팔구 필연적이다. 위의 사례들을 보면 주민들의 토지 수용 반대 운동은 사업의 발표 시점부터 시작된다. 농촌지역이든 삼림지역이든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강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령 임야권리법)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강행하려 할 경우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따따 나노와 포스코의 사례는 주정부의 강력한 프로젝트 지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주민들의 반대 운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투자기업은 행정 당국에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프로젝트 추진 초기부터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을 실수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해당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그에 기반을 둔 사업 추진 전략을 세워두어야 한다. 이는 처음부터 사업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현지 사회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포스코의 경우, 현재 담보 상태에 있는 제철소와 항만 부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철광석 채굴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 이 지역은 이미 기존의 소규모 철광석 채굴업자들과 채굴권 분쟁이 시작되고 있다. 채굴권 문제 외에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채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림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민(tribe) 사회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들 사회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생계 및 이주 대책은 물론이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용수 확보 문제, 폭포 환경 훼손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지금부터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내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주에서는 당연히 행정부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인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 계층에서 의원내각제 정치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대통령제 국가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장악력이 크지 않고 정치 상황이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입장은 정치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므로 해당 정당의 경제개발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 입장이 당해 투자 사업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은 서벵갈에서 집권당으로서 산업화와 자유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정당이지만, 오릿사에서는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오릿사에서 국민회의당은 나중에 따따 나노 자동차의 편에 섰지만, 싱구르 사태의 초기에는 반대 운동을 주도한 트리나몰 회의당을 지지하였다. 결국 정치적 기회주의가 인도 지역 정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5장

구조적 상관성 및 시사점

본고는 최근 인도경제의 급성장, 한·인도 CEPA 발효 등으로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인도 진출 시 진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인도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동부 인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경제적 구조를 살펴 보았다.

동부 인도는 지역적으로는 대하천과 평야 지대, 그리고 산림으로 이루어져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풍부한 광물, 어업 등도 유명하다. 특히 동 지역은 쌀을 주식으로 한다는 점과 힌두 중심으로 종교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대화에서 동인도회사를 통한 식민화를 겪으면서 경제적 수탈, 상인의 몰락, 유럽식 토지 소유 관계와 전통적인 농업 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농민의 몰락, 경제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또한 거대 사업에 대하여 강한 저항이 발생하여 때때의 나노 사업의 철수, 포스코 일관 제철소 건설의 부진 등으로 투자 부적격지로 평가되는 공통점도 있다.

이러한 동부지역의 사회문화와 경제의 구조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동부 인도는 경제 발달 과정이나 단계가 사회적 영향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서벵갈과 오릿시는 모두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주들 중 하나이지만, 빈곤의 원인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벵갈의 경우 공산당의 장기 집권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제 정책의 상호 협조의 부재, 토지 개혁을 통한 토지 지분의 세분화, 대형 사업 정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 및 재할 정책의 부재, 전투적 노동조합의 강세와 사업장의 폐쇄, 농업의 부진, 관료주의 및 부패 등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오릿시는 풍부한 자원, 물, 임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부진과 대규모 산업 중심의 경제 정책 실패, 강력한 집권 및 리더십의 한계 등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동부 인도가 같은 지역권에 있어도 그 사회적 구조가 서로 다른 점이 경제성장에 다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지만, 그 사회 및 투자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에 대한 접근에서 각각 주별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에 의해 진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진출 지역을 선택할 때, 동부지역에서 서벵갈은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며, 특히 서벵갈의 교통 발달 여건은 수송 시간 및 수송의 효율적 활용에 적합하다. 이와 더불어 풍부한 인력 자원이 있어, 값싸고 풍부한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노동집약적인 부문 뿐만 아니라 자본집약적인 대형 사업이 진입하는 데 풍부하고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서벵갈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최근에 매우 친산업적인 정책을 수용하면서 대형 사업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오릿시는 크로마이트, 니켈, 코발트, 보크사이트, 티탄, 철강, 석탄 등 천연자원이 많아 자원 추구적 진출에 유리하다. 또한 농업, 수산업 등

도 발달되어 있는 것은 물론 값싼 노동력이 매우 풍부하다. 더욱이 친산업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투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권역 또는 지역에 있어도 두 주는 진출 유망 및 가능 분야가 매우 다르다. 이는 동부 인도에 진출할 때 진출분야 및 지역 선정에서도 매우 차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동부지역에 진출할 때, 특히 대형 투자를 동반한 진출 시 토지 수용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포스코 진출 사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토지 수용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다. 주민들은 토지 수용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토지 수용에 대한 저항의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진출 초기부터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두 주 모두 대형 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NGO 등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 배경 및 추진은 다르다. 서벵갈의 경우 대형 산업의 진입 시에 비옥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지만, 지역민의 낮은 고용 창출, 정권의 역학적 구조 변화에 따른 이해집단의 방해 등이 토지 수용이 안 되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반해 오릿사에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은 대부분 광산 개발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광산 개발에 대한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채굴권 경쟁, 임야 별채와 환경 파괴에 의한 환경운동자들의 반발, 공장과 항만 부지 수요에 대한 반대, 물의 부족 가능성 등에 의한 것이다. 특히 주민의 반발은 이주 계획 및 재활 정책의 부재에 의한 삶의 유지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섯째, 동부 인도 진출에는 지역민의 고용 확대와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서벵갈이나 오릿사 진출에 실패한 이유는 비옥한 부지를 지역민의 생활 터전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부적절한 보상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용을 하였기 때문이다. 토지 수용 및 보상할 경

우 보상 대상 주민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 보장, 그리고 그 지역이 사업 추진에 따라 소득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는 재할 사업 등의 명확한 증거를 갖고 진출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진출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서벵갈에 진출한 때의 실패 사례에서 따따를 적극 지원했던 공산당들도 성향이 다른 파벌의 집권은 결과적으로 지원에 대한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오릿사의 경우 강력한 집권당의 부재로 인해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일곱째, 인도의 특정 지역에 진출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사회문화적 구조를 충분히 조사하고 이해한 후 진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분석하였듯이, 오릿사와 서벵갈이 같은 동부 인도에 있지만, 사회문화적 구조가 다르고 이로부터 경제적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확보에 따른 반발의 원인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를 하나의 사회권 및 경제권으로 인식하여 진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동부 인도가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점이다. 서벵갈은 인도의 관문으로써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값싸고 우수한 인력이 풍부하며, 최근 주정부가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릿사 정부는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더욱이 포스코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정부가 초기의 비협조적 태도에서 최근에 포스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오릿사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이와 연관된 사업분야도 매우 유망하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산

업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며, 관료주의와 부패 등도 근절시키면서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

이상에서 본고는 동부 인도의 서벵갈과 오릿사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을 고찰하고, 이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인도 진출 시 지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진출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본고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고는 동부 인도의 사회문화와 경제에 구조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정성적으로만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적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문화와 경제 구조 간의 상관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조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정의와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론적 배경 없이 단순한 연결을 하였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국문자료

- 문철우·김찬완. 2005. 『인디아 쇼크』.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내가 알고 싶은 인도, 사람·역사·문화 바로 읽기』.
서울: 한길사
- 이광수. 2010. 『역사는 핵무기보다 무섭다』. 서울: 이후.
- 이순철 외. 2006. 『인도시장 농식품 마케팅 전략』. 농산물유통공사.
- 이옥순. 2007. 『인도 현대사』. 서울: 창비.
- 정채성. 2005. 『개발과 부족민, 그리고 무장 게릴라: 오릿사주 산업화 정책의 문제점』.
『인도지역동향』, 제11호. 서울: 한국인도학회.
- 주한인도대사관. 2010. 『인도 통상 및 진출안내 및 소개』.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인도 주별 시장특성과 비즈니스 기회』.

●● 외국문자료

<일문자료>

- 小西正捷. 1981. 『多様のインド世界』. 東京: 三省堂
- 辛道昇 (編). 1985. 『インド世界の歴史像』. 東京: 山川出版社

<영문자료>

- Agrawal, P. K. 2010. *Naxalism: Causes and Cure*. New Delhi: Manas Publications.
- Asher, Manshi. 2009. *Striking While the Iron Is Hot: A Case Study of the Pohang*

- Steel Company's Proposed Project in Orissa*. Pune: National Centre for Advocacy Studies.
- Bagchi, Amiya Kumar & Bandopadhyay ed. 2009. *Eastern India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Pt.I: 1860-1870s*. Delhi: Manohar Publications.
- Bagchi, Amiya Kumar. 1972. *Private Investment in India 1900-1039*. New Delhi: Orient Longman.
- _____. 1998. "Studies on the Economy of WB since Independen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3(47&48), pp. 2973-78.
- Banerjee, Nirmala, and Millie Nihila. 1999. "Business Organization in the Leather Industries of Calcutta and Chennai." In Amiya K. Bagchi ed. *Economy and Organization: Indian Institutions under Neoliberal Regime*, pp. 147-187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Bennett, A. and J. Hindle. 1996. *London Review of Books: An Anthology*. UK. Verso.
- Chakraborty, Deepita and Indranil Bose. 2010. "Industrializing Wets Bengal?: The Case of Institutional stickiness."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Studies*, Begumpet, Working Paper No. 83. Hyderabad.
- Chakraborty, Bidyut. 2008. *Indian Politics and Society since Independence- Events, Processes and Ideology*. Abingdon: Routledge.
- Chakrabarti, Kunul. 2001. *Religious Process: The Puranas and the Making of a Regional Tradition*.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Crane, Robert I. ed. 1967. *Regions and Regionalism in South Asian Studies: An Exploratory Study*. Durham: Duke University.
- Datta Chaudhuri, D. 1995. "Problems of the Electronic Industry in WB: A Case Study." in Amuya K. Bachi ed. *New Technology and the Workers' Response*, pp. 145-166.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Eschmann, Anncharlott et. al. 1986. *The Cult of Jagannath and the Regional Tradition of Orissa*. Delhi: Manohar Publications.
- Frontline. 2002. "A Record in West Bengal", V. 19(14). (July 6-19)

- KPMG. 2007.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West Bengal-A Perspective."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Eastern Region.
- Mahapatra, S. M. 2010. *Growth and Development in Orissa: Myth and Reality*. Xavier Institute of Management. Bhubaneswar.
- Marjit, Sugata. 2010. *West Bengal: Challenge and Change*. Kolkata: Bengal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Munsi, Sunil Kumar. 1984. *India: Resource, Regions and Regional Disparity*. New Delhi: People's Publishing House.
- Panda, M. 2000. "Changing Poverty Scenario of Orissa." presented in Seminar in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 Pandey, B. 1998. *Depriving the Underprivileged for Development*. New Delhi: Institute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 Rao, B. Janardhan. 1996. "Adivasis in India: Characterization of Transition and Development" in Sathyamurthy, T. V. ed, *Region, Religion, Caste, Gender and Culture in Contemporary Ind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Raychoudhuri, Aжитабха, and Gautam K. Basu. 2007. "The Decline and Recent Resurgence of the Manufacturing Sector of WB: Implications for Pro-Poor Growth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IPPG Discussion Paper 10.
- Sathyamurthy, T. V. 1996. *Region, Religion, Caste, Gender and Culture in Contemporary Ind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Sen, Kunal. 2009. "Industrial Growth in Post-Reform India: Geography or Institutions?" U.K. IPPG Briefing Note. <http://www.ippg.org.uk>.
- Sengupta, Urmi. 2010. "The Hindered Self-help: Housing Policies, Politics and Poverty in Kolkata, India." *Habitat International*, 34, pp. 323-331.

The Cultur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n the Eastern India

Kwangsu Lee, Soon Cheul Lee, and Ki Chul Kwon

This is to explore the cultur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n the Eastern India composed of two provinces, West Bengal and Orissa. West Bengal and Orissa are geographically in eastern regions of India and are the most densely populated and agriculture-dependent state in India. These states remains one of the poor states in India. However, they are in different stage and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of their different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It give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irms to enter India market.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Eastern India may be the Jagannath belief and Durga puja. And modern culture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modernism brought by East India Company in the 19th century onward. West Bengal and Orissa marks the lowest on the human development indices such as medical service, health care, education, housing etc. Though the communists has been taking the power in West Bengal government, the government servants show us serious corruption and the violence of the upper classes is very widely prevalent in all over the province. What is to be noted on Orissa

is that they have very good number of Scheduled Tribes in its north-western region where deep forest with various natural sources are lying. And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entrepreneurs lead the serious resistance and struggle of the indigenous people dwelling in the region. The power and influence of Naxalite struggle here in Orissa is most noteworthy in all over India. In addition to this, the refugees from the 1947 Partition and the Bangladesh Liberation War of 1971 have affected the backward economic situation of these two provinces. Though the governments of the provinces have been trying to prompt various investments, the poor condition of infrastructure like road, light, port is blocking the progress.

West Bengal and Orissa are most poor states compared to others. Agriculture is the leading occupation in West Bengal and Orissa. However, industry is the lowest contributor to the gross domestic product of the states. Except the mineral and steel industries, only traditional sectors such as cottons and leathers are playing important economic role in these states. Manufacturing are still backward sectors in these two states. Minerals account for 50% of Orissa's export and the traditional items such as engineering products, leathers, textiles, jeweller are major export products in West Bengal.

Two states are by far the least industrialized and underdeveloped states because of their uniqu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It is analyzed that the reasons that West Bengal remains one of the poor states in India are political instability and bad governance, political and high corruption with Bengal the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led Left Front rule for three decades.

Orissa is India's poorest state and highly disparities which have long historical and deep institutional roots. Agriculture-deep dependence and its low productivity, lack of leadership and fails of industrial policies have been unable to break the disparities. Land reform makes another obstacles for the firm that

needs vast land to establish the factories. Massive resistance from the people of the state who mainly depend on agriculture for livelihood also is a major factor against attracting investment in Orissa.

There are two case to explore the cultural and economic implication on the eastern India, the Tata Nano and POSCO.

In 2006, Tata Motors started constructing a factory to manufacture their \$2,500 car, the Tata Nano at Singur, West Bengal. Tata chose the Singur site because of its proximity to Kolkata and highway connections. The West Bengal government obliged, making use of a colonial land expropriation law and state pepression to force 13,000 Singur peasants out of 1,000 acres of prime agricultural land. The project faced massive opposition from displaced farmers. They were given a political support by West Bengal's opposition leader Mamta Banerjee of Trinamul Congress Party. After repeated violences, Tata finally decided to move out of Singur in 2008. On 7 October 2008, Tata announced that they would be setting up the Tata Nano plant in Sanand, Gujarat.

POSCO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Government of Orissa in June 2005, to set up a 12 MTPA green field steel plant near Paradip, Jagatsinghpur District, Orissa, with an estimated investment of USD 12 billion. The company will build a 4 million-tons per annum capacity steel plant in Orissa, during the first phase of its project , and expand the final production volume to 12 million tons per annum. Production from the plant was scheduled to begin by the end of 2011. But the plan, one of India's largest foreign investment projects, has already faced more than three years of delays because of controversy over land acquisition and mining rights. POSCO has faced protests from local residents who stand to be affected by the plant as well as the environment ministry probe. In August, 2010, the environment ministry ordered a halt to all work on the project, including land acquisition,

while the panel looked at whether the forest rights act, which seeks to protect forest land and settlers, had been violated.

Policy implications for potential investors from inside or outside India are about the process of land acquisitions. Land for investment project is advised not to include the privately owned or to minimize. If it included private land, direct negotiations between the industry and the landowners would be advisable but it needs a strong political will to end all protocol and red tape. Even in the case of projects that are genuinely for public welfare,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and the value that the land acquisition officer pays to the landowners. The rehabilitation and relocation of the landowners affected by acquisition should be looked into carefully.

The results give som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level and growth of economic development in India would be different in state by state. It also shows that land acquisition is the most difficult factor for the firm to invest in Eastern India and the resistance has a different background. It indicates that the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have to be investigated before the firm invests in India such as West Bengal and Orissa.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states still have a potential as an emerging market even though there are structural difficulties.

이광수(李珖洙)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어과 졸업

인도 University of Delhi 역사학 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現, E-mail: gangesh@pufs.ac.kr)

저서 및 논문

『역사는 핵무기보다 무섭다』(2010)

『인도 데칸 지역 도시화 속에서 불교 사원에 대한 기부: 기원전 2세기-기원후 2세기』(2010) 외

이순철(李淳喆)

미국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現, E-mail: sclee@pufs.ac.kr)

저서 및 논문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과 대응과제』(공저, 2009)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에 대한 평가: 상품 양허안 중심으로』(2010) 외

권기철(權奇哲)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現, E-mail: chulk@pufs.ac.kr)

저서 및 논문

『인도의 경제발전-개혁·지역·이주』(2008)

『벵갈로르 지역혁신체제의 진화와 정책과제』(2010) 외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The Cultur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n the Eastern India

Kwangsu Lee, Soon Cheul Lee, and Ki Chul Kwon

동부 인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 간의 연관성을 고찰한 결과, 우선 동부 인도는 지역별로 사회적 영향에 따라 경제발달 과정과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역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동부 인도 진출 시 토지수용 저항으로 추진이 쉽지 않고, 그 배경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출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및 이해한 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부 인도는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지만 풍부한 인력과 자원, 최근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 추진 등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